PROVIDING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AND PRACTICES FOR MULTICULTURAL SOLDIERS IN THE KOREAN MILITARY: A GROUNDED THEORY APPROACH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Taiyang Choi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Taiyang Choi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unsun Oh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PROVIDING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AND PRACTICES FOR MULTICULTURAL SOLDIERS IN THE KOREAN MILITARY: A GROUNDED THEORY APPROACH

by

Taiyang Choi

This project was motivated by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alienation experience by multicultural soldiers when I was in the military. I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f what I experienced with chaplains who met with multicultural soldiers. To this end,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chaplains, and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study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rough this approach, I found that chaplains were indifferent to multicultural soldiers, and analysis determined that this indifference originated in the absence of Pastoral Theology.

I explain Postcolonial and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to understand multicultural soldiers and suggest practical forms of Christian Peace Education because this method can promote interdependence, recovery of conflict, and hospitality in multicultural soldiers who experience discrimination, conflict deeping, exclusion, and alienation.

KEYWORDS: Multicultural Soldiers, Qualitative Study and Grounded Theory, Postcolonialism,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Christian Peace Education

국문 초록

한국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한 환대적 목회신학과 실천들 제시: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by

Taiyang Choi

본 프로젝트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차별, 배제 및 소외를 경험함에서 기인한다. 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난 적이 있는 군종목사들에게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개방코딩,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을 통해 이 질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목회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이해하기 위해 포스트콜로니얼과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신학을 제시하였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기독교평화교육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 차별과 갈등 심화와 배제와 배타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상호의존과, 갈등 회복, 그리고 환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다문화가정 장병, 질적연구와 근거이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환대지향의 목회신학, 기독교 평화교육

SUMMARY

For a long time, Korea had been a homogeneous nation; however, our society is rapidly becoming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2.1 million, has increased 7-fold over the past 20 years; currently, in 2020, the number of foreigners,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taying in country is more than 2.7 million, and this group is expected to reach 5.5%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ry by 2020. Accordingly, citizens are actively engaging with discourse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but these discussions are fueling conflict rather than opening alternatives, and the awareness of cultural coexistence among the indigenous people is low.

The growing diversity of the society generally is reflected in the specific context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allowed for apparently mixed-race people to enlist as a supplementary service rather than as an obligation (but the military service law created good military service conditions for multicultural soldiers). In fact, the military *needs* multicultural soldiers. The government has required the military to recruit more troops to account for the emergence of a falling birth 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Therefore, i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service of multicultural soldiers since 2011; it is estimated that, in 20 years, 5 percent of the soldiers will b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soldiers is not positive. The military, like the society at large, basically operates on an assimilation policy; therefor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ve suffered injuries or difficulties at home or school due to this rigid structure are at high risk of experiencing similar objectification in the military.

This project includes in-depth interviews with chaplains in their late twenties and middle thirties who had met with multicultural soldiers, and examines their experiences with these

soldiers. I analyzed the content of the interviews through a theory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and found that chaplains were indifferent to multicultural soldiers. The causes of indifference were the chaplains' lack of empathy for multicultural experience, the peculiarity of the military church relative to care, and the lack of nuanced values that withhold judgement. In addition, I found that preparation for the pastoral care of multicultural soldiers was insufficient because the military places priority on chaplains performing administrative tasks like assigning troops. Furthermore, I found that chaplains were not able to consider the needs of multicultural soldiers due to their internalization of assimilation and to the lack of space and time to address concerns in the church. As a result, chaplains lacked Pastoral Theology in their approach to multicultural soldiers, lacked efforts to practice care, and neglected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 soldiers being objectific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showed that Pastoral Theology should be established for multicultural soldiers. Therefo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ostcolonialism, I recognized the situation faced by multicultural soldiers and examined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through Hospitality Theology. In addition, I proposed Christian Peace Education. To do this, I examined the theories of Frantz Omar Fanon, Edward W. Said, and Homi K. Bhabha which constitut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ostcolonialism, and examined how to apply them to Pastoral Theology. I also examined the Theology of Hospitality for multicultural soldiers through Emmanuel Levinas, Dietrich Bonhoeffer, Letty M Russell, and Jacques Derrida, and suggested a definition for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Also, through Christian Peace Education, I proposed a practical method of "Worship Service of hospitality," "Dining Table of hospitality," and "Reading the Bible through the eyes of another" as ways of practicing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toward multicultural soldiers. Through these practices, I

hope that chaplains will fully embrace Hospitable Pastoral Theology toward multicultural soldiers.

국문 요약

오랫동안 한국은 단일민족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이 21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무려 7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에는 체류 외국인은 더욱 늘어나 외국인 및 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국내 총 인구 중 5.5% 수준인 27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안의 제시보다는 갈등을 부채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주민들의 문화공존 의식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군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의무가 아닌 보충역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었지만, 병역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정 장병의 원활한 군 복무여건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미래군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병력의 충원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장병 복무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장병의 복무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20년 후에는 전체 장병의 5%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대에 복무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현실은 밝지 않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데, 이러한 경직된 구조로 말미암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상처나 어려움을 겪었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군대에서도 타자화를 경험할 위험은 아주 높다.

본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난 적이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중반에 이르는

군종목사들을 심층 면담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어떤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터뷰의 내용은 질적 연구에 근거한 이론을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은 다문화 경험에 대하여 참여 노력이 부족했던 점, 돌봄에 취약한 군인교회의 특수성, 그리고 판단을 유보시키는 복합적인 가치관의 형성이 배경이었다. 또한 바쁜 과업과 자기 배속부대를 우선으로 군종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목회돌봄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동화주의의 내면화 및 교회 공간과 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그들을 배려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군종목사는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신학을 결여되었고, 돌봄의 실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장병이 타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되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들은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 확립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환대 신학을 통해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그리고 호미 바바(Homi K. Bhabha)를 통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론을 살펴보았고, 목회신학적 적용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레티 러셀(Letty M Russell), 그리고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환대신학을 살펴보았고,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대 예배와 환대의 밥상, 문화 간 성서 읽기라는 실천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하여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나는 군종목사로 다양한 지역과 부대에서 여러 장병들을 만나왔지만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없었다. 그러다가 소속 부대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군부대를 소개하고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취지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들에게 각 종파별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순서를 준비하면서 군종목사인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담임하는 군인교회도 그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한글이 서툰 자녀가 있었는데 그 점을 배려하지 못하여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자 진행을 돕는 장병들이 그들에게 비아냥 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모습은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 상황은 자칫 군부대와 군인교회가 '초경계성의 원리(trans-boundaryness)'에 빠질 상황으로 인식되었다.[1] '초경계성의 원리'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경계들이 있는데, 이 경계들이 인간의 상호의존성, 존엄성, 가치 등을 유린하고 박탈하는 것 역시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사회계층, 교육배경이나 가족배경 등의 경계 요소들을 '자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가치나 권리라고 위계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군부대 안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타자화는 그들을 배격, 억압, 지배하는 태도로 표면화될 것이며, 기존의 장병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중잣대와 이중시선은 다름아닌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 이 경험은 내게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환대-안의-일치'를 고민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환대-안의-일치'란 '긴장-속의-일치'를 극복하고 '차이'를 환영함으로 환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3]

---

[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59.

[2] 박흥순 et al.,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다문화교육 매뉴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8.

[3]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05 and 108-09. '긴장-속의-일치'란 강한 자의 지배논리에 약한 자가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환대란 경계요소들이 만들어낸 긴장관계를 허물고 하나됨을 실천하는 개인 및 공동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18 년 1 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 중 하나인 오현선의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Korean Context' 수업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우월감에 근거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문화사회 담론에서 다문화가정은 이웃이며 선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선주민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그 인식에 따라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더불어 군대에서 다문화 현상을 이해해 온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B. 논지에 대한 토론

오랫동안 한국은 '한민족 문화'라는 단일민족국가였다. 극소수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삶과 문화를 공유함에 있어서 그 경계는 분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살펴볼 때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다문화시대의 출현은 1990 년대 정부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며 시작했다. 여기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2007 년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체류외국인이 100 만명을 돌파하는 등 다인종, 다문화시대로의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통계에 따르면 2017 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10 만여 명에 이른다.[4] 1998 년에는 30 만여 명, 2008 년에는 110 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증가율은 20 년 여만에 무려 7 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체류 외국인은 더욱 늘어나 외국인 및 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2019 년 12 월 현재 국내 총 인구 중 5%

[4] 법무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서울: 법무부, 2018), 137.

수준인 2,524,656 명에 이르고 있다.[5] 이렇게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선주민들은 아직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윤인진은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인은 다문화와 이주민에게 냉담해지는가?* 라는 학술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를 통해 다문화와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보다는 다민족,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6%였지만 2015년에는 49.6%로 줄어들었다. 이런 인식 변화는 한국인과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이런 생각을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48.9%였으나 2015년에는 56.9%로 늘어났다.[6]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국민 인식의 변화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공존 의식도 동일하게 낮은 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 년 다문화수용성지수 조사 결과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은 100 점 만점 기준 52.81 점에 그쳤다.[7] 이는 유럽 18 개국 평균(74 점)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며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시된 정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주민에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동화정책을 넘어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8] 문화다원주의 정책은 주류사회의 문화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다인종, 다문화 국가들이 적극 수용하고 있다.[9]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10] 문재인 대통령도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서울: 법무부, 2020), 2.

[6] 윤인진,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인은 다문화와 이주민에게 냉담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December 2015): 109.

[7] 김이선,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9), 49.

[8] 김휘정,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vol. 31, no. 552 (November 2012): 3-4.

[9] 염재중, "다문화 정책, 동화주의에서 문화다원주의로 전환해야," *조세일보*, accessed May 14, 201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1/20121106159672.html.

[10] 양정우, "이정옥 장관,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 *연합뉴스*, accessed February 1, 2020,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 구성원인 만큼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면서도 우리 문화가 다양성을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단체들은 아직까지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11]

군대 내에서도 동일하게 공존과 갈등의 기로에 서있다.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0 년 한국군의 병력규모는 50 만여 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복지제도 개선과 미래군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유급지원병 제도와 사회복무 제도 등의 대체복무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장병의 복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제 39 조 국방의 의무) 및 병역법(제 3 조 병역의무 조항)에 따라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72 년 12 월 31 일부터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 년 12 월 31 일부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이들의 현역 입영이 2011 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 내 다문화가정 장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5 년 동안 8,616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징병검사를 받았다. 2016~2018 년에는 15,038 명, 2019~2024 년은 40,253 명, 2025~2030 년 사이에는 무려 104,694 명의 인원들이 징병검사를 받는다. KIDA 에서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입대 추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2012 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수가 1,165 명이었지만, 2019 년에는 3,045 명, 2026 년에는 5,000 명으로 예상되며, 2028 년에는 12,000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12] 이는 한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다.[13]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향후 20 년 후에는 전체 장병의 5%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

http://www.yna.co.kr/view/AKR20191114167800005?input=1195m.

[11] 오수진, “문 대통령 의지와 다문화 현실간 괴리, 지원책도 미비,” *연합뉴스*, accessed February 1, 2020, http://www.yna.co.kr/view/AKR20191120071000371?input=1195m.

[12] KIDA는 한국국방연구원을 가리키며,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국방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13] 정명호, “다문화환경 대비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ThM diss.,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26.

이렇게 군의 환경이 다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군에 들어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환경은 밝지 않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 가운데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교제도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게 된다.[14] 그런데 군대는 어떠한 곳인가? 군대는 기본적으로 동화정책을 기조로 한다. 동화정책이란 일방적이고 강제성을 띤 형태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그 문화를 받아들여 공통문화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15] 장 피아제(Jean Piaget)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나 정보를 기존의 인지 구조에 부합하게 만드는 '동화'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를 주변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는 '조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평형을 이루며 성장한다.[16] 이 평형 상태에서 조절을 상실하게 되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방해를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타인과 건강하게 연대하는 법을 잃게 된다.[17] 그런 면에서 군대는 다문화가정 장병을 고려해볼 때 다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동화정책을 지양하고 주변 세계와 충분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타인과 연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발간한 정신교육 교재(2019)를 보면, 군대조직의 특징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18] 첫째, 군대는 그 어떠한 조직과는 달리 임무 완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둘째,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위계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셋째, 군대사회는 개인에게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넷째, 군대는 조직적 단결과 협동을 중시하는 운명공동체이다. 다섯째, 모든 군인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특정 정파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군대의 특수성은 학교생활과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가지고 입영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 생활을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군 조직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다문화가정

---

[14] 박안서, "다문화장병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방안," *국방정책연구* vol. 26, no. 4 (January 2011): 182- 84.

[15] 박성호,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PhD diss.,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55.

[16] 김종구, "평화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피아제를 읽다," *중등우리교육* no. 184 (June 2005): 99.

[17] 김종구, 101.

[18] 노영구, 김영수, and 최영진, *정신전력교육*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9), 197-201.

장병들이 타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러한 경직된 구조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 생활에서 차별과 집단 따돌림 등의 부조리를 겪는다면 사고로 직결될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장병의 부적응 예상 요인을 문화적 차이 51%, 언어 44%, 개인성향 5%로 파악함과 동시에 병영 내 잠재된 내면화된 타자화로 인하여 신종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19] 뿐만 아니라 각급 지휘관 및 군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잠재적 관심 대상자(일명 병영생활 도움 병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한계를 통해 군종목사들은 또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군종목사들은 군대에서 타자화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좀 더 발전시킨다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군종목사들의 목회신학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을 통해 나는 군종목사의 목회신학이 군부대와 군인교회에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C. 문헌 자료의 평론적 검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바뀌어가면서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일민족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연구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운석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인구통계학적-서술적(demographic-descriptive) 관점', '이념-규범적(ideological-normative) 관점', '프로그램-정책적(program-political) 관점'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20] 이에 따라 나는 나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유사한 연구들이 있었는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학술정보통합서비스(DBpia)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19 진병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PhD diss.,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17.

20 서운석, "한국사회의 국제개방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vol. 6, no. 3 (August 2016): 194.

인구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 관련 선행 연구는 3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6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은 학교 교육, 부부 갈등, 가족 상담 등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념 및 규범적 관점에서는 5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8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은 대부분 다문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적 및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설한은 문화, 국가, 종교, 민족들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다문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 규범적인 면에서 다문화주의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21] 프로그램 및 정책적 관점에서는 천여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천여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교육학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495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251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대체적으로 아동과 학생들에 관한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교육정책 방향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선행연구는 4 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3 개의 학술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것은 일반 학계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대에서의 다문화 현상과 연관된 연구작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중배는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정을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 이론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군 생활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였다.[22] 정현석은 한국군 일반장병들의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양적연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 이론을 통해 장병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23] 진병규는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여 2015 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24] 이동구는 군대 안에서 다문화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때 군 관리자에게 필요한

---

[21] 설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vol. 7, no. 1 (August 2014): 102.

[22] 김중배,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경험" (PhD diss.,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참조.

[23] 정현석, "군 장병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분석에 따른 전력향상방안 연구" (PhD diss.,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9) 참조.

[24] 진병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PhD diss.,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참조.

새로운 리더십과 다문화 리더십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안했다.[25]

이상으로 나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범위에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의 범위가 부족하였다. 대부분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의 병영생활 적응, 사고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지언의 학술논문인 *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 함양의 필요성과 군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에서는 다문화 교육 실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자 스스로도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 장병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실태 파악 없이 이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26] 둘째, 실무부대에서 기존의 장병들과 다문화가정 장병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실제사례 연구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는 인구 사회학적 관점에서 양적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다문화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사례에 대한 실제적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젝트에서 연구하려는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군종목사의 목회신학의 선행연구도 전무하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목회신학은 윤성필의 박사학위 논문인 *다문화 목회와 선교적 리더십 개발 연구*가 있고 석사학위 논문까지 확장하면 9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선교 차원에서 국한된다는 면에서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27] 이런 면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군종목사의 경험 및 목회신학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

[25] 이동구, "다문화사회의 군 리더십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PhD diss.,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참조.

[26] 정지언, "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 함양의 필요성과 군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국방정책연구* vol. 28, no. 4 (December 2012): 182.

[27] 윤성필, "다문화 목회와 선교적 리더십 개발 연구"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8) 참조.

D. 사용할 용어 정의

1. 타자(The Other)

타자(The other)란 자기 외의 사람 또는 다른 것을 뜻하며, 동일한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자아'의 상대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타자란 흔히 다른 것, 즉 동일 범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사람일 경우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와 다른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백인종에 대해서는 유색인종이,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주민이,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성애자에게는 동성애자가 타자이다.[28]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타자란 '나'라는 개인과는 통합할 수 없는 존재, 이방인이자 낯선 신비이다"라고 말한다.[29] 즉 타자는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보편주의 입장에서 타자와 세상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30] 그래서 타자에 대한 윤리를 필요로하며, 윤리란 이런 폭력과 억압 가운에 있는 타자가 보이는 행위, 부름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게 있어서 타자는 '너'인 동시에 하나님의 '너'이다.[31]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그는 타자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옮기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은 타자를 향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32]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타자를 '객'으로 비유하면서 낯선 객은 주인의 처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인에게 종속되었디만, 주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응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주인에 대한 주인이라고 말한다.[33]

2.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은 80년대 후반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문화와*

---

[28]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철학연구회* no. 21 (April 2011): 392.

[29]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시간과 타자*, trans.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1996), 85.

[30] 문성훈, 395.

[31] 김현수, "타자 대면의 방법들: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 윤리에 대한 한 해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5, no. 1 (October 2009): 286.

[32] 김현수, 287-89.

[33] 김예란, 유단비, and 김지윤,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언론과 사회* vol. 17, no. 1 (February 2009): 4-5.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를 그 시작점으로 본다.[34] 이후로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이 중심 담론이 되었고,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이 재해석하였다.[35]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을 위시하여 이론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장을 형성하게 되었다.[36]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은 식민 지배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탈식민주의' 혹은 '후기 식민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 탈식민주의는 종래의 식민주의와 단절을 의미하고, 후기 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연장을 뜻한다. 각각 두 용어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데,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양자의 의미를 모두 살려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식민지적 관계의 연속이라는 것과 이것의 탈피에 대한 의식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이다.[37]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비유럽 지역의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는데, 태혜숙은 "한국은 식민지 근대의 명목 하에 일제 제국주의의 타자화를 경험하였다"고 말한다.[38] 이는 타자화를 경험했던 후손으로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대에서 타자화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하여 비교하고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3. 환대

환대는 음식 문화와 관계가 있다. 한자어로는 기쁠 환(歡)에 기다릴 대(待)를 써서,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이다. 그리스어로 호스페스(hospes)는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데 대하는 것으로, 편안한 휴식 자리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39]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환대를 실천해 왔는데, 예수는 낯선 이방인, 과부, 어린이, 병자, 몸 파는 여인 등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주류 공동체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에 대한 치유와

---

34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vol. 4, no. 1 (June 2011): 168.

35 고정갑희, 168.

36 고정갑희, 168.

37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경제와 사회* no. 70 (June 2006): 66-68. 이는 로즈마리 헤네시(Rosemary Hennessy)가 말한 정의다.

38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서울: 문학과학사, 2006), 299.

39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1.

식탁 공동체를 베푸는 등의 무한 환대가 공생애의 주된 주제였다.[40] 레티 러셀(Letty M. Russel)은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의 관점에서 공정한 환대를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공정한 환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환영을 공정한 환대로 살아내는 것은 신의 소명(召命)이자 도전이다.[41]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체계화한 학자이다. 그는 환대를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무조건적인 환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무조건적인 환대란 손님으로 '도착하는 이'의 신분증명서나 그들의 법적 상태 또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얼굴' 하나로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42]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환대는 예수의 시선으로써 '방문의 환대' 또는 '절대적 환대'라고 정의하며 환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진정한 환대란 환대의 과정에서 시혜자와 수혜자가 위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홀연히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그 환대를 통하여 전적인 '삶의 긍정'의 경험이 일어나는 "삶-긍정의 사건"이 바로 진정한 환대다.[43]

환대의 개념은 이처럼 자아와 타자와의 간격을 좁히라고 요구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환대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해 정립할 수 있는 목회신학의 요소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4.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은 우주 전체의 질서,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cosmo)'와 지역적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가 결합된 개념으로, 제한된 경계를

---

[40]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3시대* vol. 92 (September 2016): 7.

[41] Russell, *공정한 환대,* 156.

[4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6.

[43] 강남순, 192.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44]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의 철학적 기원은 그리스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는 디오게네스(Diogenes Laërtius)가 기원전 4 세기에 "코스모스 시민"[45]이라는 의미로 이 개념을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다.[46] 이 후 스토아주의 철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논(Zeno of Citium)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적극적인 양태로 발전시켜 코즈모폴리턴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후 칸트(Immanuel Kant)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윤리적, 정치적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접목시켜 자기 자신이나 타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소위 '목적의 나라'를 제시하였다.[47] 그러나 칸트의 코즈모폴리터니즘은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으며, 21 세기에 이르러서는 '동질성의 연대'의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다름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다.[48]

E. 청중

본 연구는 네 그룹의 청중들을 염두하였다. 첫 번째 청중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에 대하여 고민하는 군종목사나 군선교사역자들이다. 본 질적 연구를 통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역자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맞이하게 되는 군인교회의 가족들이 청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장병들에게 해당되는 청년의 시기는 성인기의 삶과 미래에 대해 자신보다 삶의 경험이 풍부한 '스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연장자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인가족들은 이러한 면에서 병영생활에 대한 안내자 및 상담자와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49] 이러한 면에서 그들이 군종목사와 함께 어떻게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도울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

[44] 송인재, "근현대 중국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 21* vol. 8, no. 6 (December 2017): 518.

[4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81. 강남순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한 '코즈모폴리턴' 개념은 세계시민(citizen of the world), 코스모스의 시민(citizen of the cosmos), 그리고 우주의 시민(citizen of the univers)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는데, '코스모스의 시민'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4세기 그리스에서 '코스모스'(cosmos)는 '우주'(univers)에 가득 찬 온전한 힘을 담은 공간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46] 강남순, 79.

[47] 강남순, 78–104.

[48] 강남순, 120–27.

[49] 김재은, *기독교 성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105–06.

부모들이 청중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부모들은 병영생활을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종목사와 군인교회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교회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다.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 입대하게 되었지만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군종목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 장이 되는 군인교회를 알고 적극적으로 군인교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F.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1. 연구의 범위

앞으로 군인으로 입대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이미 타자화(othering)의 경험을 겪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군부대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대하는 기본 방침이 동화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군종목사는 현 상황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군종목사가 어떤 목회신학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인 환대에 입각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본 연구를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군부대나 군인교회에서 대면할 기회가 있었던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2. 제한성

첫째, 현재 군부대에서의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시간은 주일 오전이며, 이에 한해서만 과업으로 일과에 반영되어 있다. 이외에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 신우회 모임, 또는 수요일 오후나 저녁에 실시하는 수요종교교육 등은 각 부대의 여건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커리큘럼은 각 군인교회마다 시간, 장소, 구성 등이 상이할 수도 있다.

둘째, 군종목사 면담 대상자들의 소속이 모두 육군이다. 현재 군대에 입영을 하는 방법은 병무청에서 징집이 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육군은 징집과 입영의 방법이 있으며, 기술 행정병 등에 한해서는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오직 모집병에 지원하여 입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육군이 더 용이하며, 타군에 비해서 육군에 입영하는 숫자가 월등히 높다. 그러한 면에서 면담 대상자의 모집 과정에서 타

군의 군종목사들을 찾기 어려웠던 제한점이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50]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이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며,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주민 가정은 북한 이탈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해당자를 다문화가정 장병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 가운데 자녀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국제결혼 가정만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가운데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한정된 범위만 살펴보게 될 것이다.

G. 독창성과 공헌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회의 선행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주로 선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군부대의 연구도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찾아보아도 국방, 복지 분야에 20 여개 정도만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군인교회의 선행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군종목사의 목회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실천적인 방안으로는 환대정신을 반영한 기독교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종과 지역, 그리고 성별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다. 그렇기에 차별과 억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타자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 정립되며, 군종목사를 포함하여 교회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상호의존을 통해 변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

[50] 박안서, “다문화장병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방안,” 180.

Chapter II
질적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방법: 근거이론 적용

본 프로젝트에서 군인교회가 '초경계성의 원리'를 넘어 '환대-안의-일치'를 통해 예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인교회의 목회자인 군종목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군부대와 군인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20 대 후반에서 30 대 중반 군종목사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신학을 알아보았다.

1. 왜 질적연구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란 행위자들이 모종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이다.[51] 즉 연구대상의 행동, 언어, 생각 등을 연구자의 눈을 통해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의미나 동기를 밝혀내고 그 행태의 사실과 함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52] 다만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아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찾고 기술하고자 한다.[53] 그렇기 때문에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목소리 없는 무수한 이들과 대변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질적연구는 민족, 인종, 문화로 말미암아 타자화된 관계를 지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포스트콜로니얼 담론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질적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밀도 있게 그려내는 '일상적 세계의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복잡하고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풍부한 묘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54] 마지막으로 질적연구는 단편적인 경험만을 분석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그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를 총제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

[5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서울: 박영사, 2018), 28.

[52] 이광석, "해석현상학적분석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질적연구* vol. 14, no. 2 (November 2013): 133.

[5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50.

[54] 김영천, 123.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발견할 수 있다.[55] 따라서 질적연구는 다문화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군종목사의 경험을 총제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군종목사의 목회신학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인교회에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하여 상호의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기에 적절하다.

2. 근거이론

본 연구는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연구과정을 정확히 밝혀 보여주는 근거이론은 다른 질적연구 방법에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나는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이란 사회적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이론에 도달하는 방식이다.[56] 근거이론은 1967 년 미국의 바니 글레이저(Barney G. Glaser)와 안셀름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가 저술한 *근거이론의 발견(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책이 출판된 후에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과 전통에서 오는 관점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1990 년대에 들어와 함께 팀을 이루어 근거이론을 정교화하는데 공헌하였다.[57] 근거이론의 특징은 이론 형성을 위한 사물의 이해하는 방식을 '귀납적 접근'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58] 또한 근거이론이 다른 질적연구 방법과 구별되는 이유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코딩을 통하여 개념적이고 관계적인 구조의 완결성을 가진 이론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다.[59] 최근에는 다른 질적연구 방법들도 수집된 질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일정한 구조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발견된 연구결과의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제시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이론적 시각에서 표현하는 근거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근거이론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

[55]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137.

[5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46.

[57]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76.

[5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49.

[59] 권향원 and 최도림,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vol. 45, no. 1 (March 2011): 284.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60]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사회학자 조지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으로,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61] 그러한 면에서 질적연구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코즈모폴리턴 환대로 이론화하기에 적합하며, 무엇보다 군인교회와 군종목사가 타자화된 대상과 상호 의존을 이루며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포스트콜로니얼 담론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경험한 군종목사들의 목회신학을 연구하기 위해 상징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근거 이론을 선택하였다.

나는 근거이론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 주체들과 라포(rapport)[62]를 형성한 후 심층 면담을 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경험한 군종목사들이 어떤 목회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부자적 입장에서 공감함으로써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63] 더불어서 면담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였다. 김영천에 의하면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면담이다."[64]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장병에게 군인교회는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인정하는 공간입니까?
2. 군인교회가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3. 다문화가정 장병이 군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군인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장병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계층은 주로 누구입니까?

---

[6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54.

[61] 김문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no. 47 (May 2015): 9.

[62]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88. 라포(rapport)는 심리학적 용어로,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 대상자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 또는 심리적 공감을 형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6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6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26.

5. 다문화가정 장병이 소속 부대와 군인교회에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6. 다문화가정 장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군종목사로 임관하기 전 다문화가정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8. 군종목사로 임관하기 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9.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하여 어떤 목회신학이 있습니까?
10. 다문화가정 장병이 군인교회에서 어떠한 환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다문화가정 장병을 상담하신 적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례를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12.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 도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상담을 하시면서 실수하신 부분이나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14. 현재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소속 교단이나 군부대,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6. 현재 속한 군인교회에서 다문화의 주제에 관련하여 설교나 강의,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7.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하여 별도의 교회의 공간을 마련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8.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에 관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 목사님은 군부대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군인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인 군종목사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에서 선행될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종목사들은 다양한 장병들을 만나고 상담을 통하여 갈등과 고민을 해소할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사명감이 분명할 것이다.
2.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3. 군종목사들은 인종과 언어의 이해 수준과 상관없이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것이다.
4.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특별예배 및 교육을 많이 할 것이다.

5. 군종목사들은 언제든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을 것이다.

6.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며 대처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B.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군부대와 군인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군종목사들이다. 군종목사들의 연령대는 주로 20 대 후반에서 30 대 중반에 이르며, 대부분 연대나 여단급 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0 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부대의 규모에 따라 군종목사들이 군종활동 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계층이 달라지며, 군인교회의 구성원들도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된 군종목사는 간부 대상 참모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주로 대규모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군종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소속된 교회 구성원들도 주로 군가족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연대와 여단급에 소속된 군종목사는 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종활동을 실시하며,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장병들을 만나기에 용이하다. 또한 이에 속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장병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나기에 훨씬 용이하다. 전화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들 중 6 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제의에 동의하였다.[65] 그들은 모두 남성이며, 학력은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였다. 연구참여자 대상 중에 여성이 없는 이유는 본 프로젝트의 연구참여자 조건 안에 해당하는 여성 군종목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 군목은 임관한지 4 년 미만인 초임자들이다.[66]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65] 군종목사들은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수집함에 있어서 어떠한 힘을 행사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66] 2019년 9월 기준으로 현재 군종목사는 333명이며 그 중에서 여성 군목은 8명으로, 약 2.4%만이 여성이다. 또한 여성 군목은 2015년부터 임관하였기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영관급(소령, 중령, 대령) 군종장교는 아직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종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군인교회의 한계를 드러낸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67]

	연령대	성별	군목 경력	부대 경험 수
연구참여자 A	30 대 중반	남자	10 년차	5
연구참여자 B	30 대 초반	남자	8 년차	6
연구참여자 C	30 대 초반	남자	6 년차	3
연구참여자 D	30 대 초반	남자	4 년차	2
연구참여자 E	20 대 후반	남자	4 년차	2
연구참여자 F	20 대 후반	남자	2 년차	1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시간은 60 분 내외로 하며 면담시간 초과 시 휴식 후 면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양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2,3 차 면담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필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종목사들은 연구 내용을 통하여 자신의 목회활동을 돌아보고 다양하고 깊은 목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혹시 우려할 수 있었던 익명성의 여부 및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익명성을 비롯하여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언제든지 연구 철회가 가능하며, 원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녹음을 중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면담 내용 녹음 및 필사 자료는 연구 기간 이후 모두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엄격하게 윤리적인 보호 아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목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데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도 설명하였다. 면담 장소는 편안한 분위기

[67]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군목경력과 나이가 도표에 나와도 중복되는 군목이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노출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다고 밝혔다.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들의 각 목양실에서 할 것이며, 부대 사정 상 추가 대면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전화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임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알렸다.

C. 연구 진행 과정

나는 인터뷰에 동의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2019 년 10 월 29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진행하였다. 모두 1 차 면담을 시작하면서 동의서를 받았고,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각 부대의 인사과 혹은 정훈과에 '면담에 관한 부대지침'을 확인하고 면담에 임할 것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녹음과 함께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 항목이 많았고 인터뷰를 필사한 후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하는 질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연구참여자를 각각 3 회씩 면담하였으며, 한 사람당 평균 1 시간 32 분을 면담하였다. 모든 면담에 대한 녹음시간은 총 10 시간 29 분이며, 그 내용을 모두 필사하였는데 A4 용지에 글자크기 10, 장평은 100, 줄간격은 1.5 로 설정하여 필사 자료는 총 154 쪽이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모두 타이핑한 필사자료와 인터뷰하면서 작성했던 메모를 초기자료로 생성하고, 근거이론 방법의 특성 상 면담 진행과 함께 동시에 자료분석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결국 이론적으로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과 줄 단위 분석 및 메모 등의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심층 면담과 필사자료

연구참여자	녹음시간		면담 횟수	녹음한 면담	필사한 쪽수
	시간(h)	분(m)			
A	1	54	3	1,2,3 차	26
B	2	3	3	1,2,3 차	37
C	1	25	3	1,2,3 차	19
D	1	52	3	1,2,3 차	33
E	1	46	3	1,2,3 차	32
F	1	38	3	1,2,3 차	24
총	7	218	18		171
평균	1 시간 46 분		3		28.5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 중에서도 안셀름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와 줄리엣 코빈(Juliet M. Corbin)의 근거이론 분석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억압과 갈등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현상을 설명하며 학문적 기여를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형성이 필요하며, 사회 현상과 인간 행동의 억압과 갈등 간에는 그 이면에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사람은 의미라는 기초 위에서 행동하며,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되고 재정의되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상의 본질에 대해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조건(구조)과 행동(과정)과 결과 간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68]고 하였다. 연구자는 과학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거이론에 따른 접근은 서술, 개념 정리, 이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가 진행된다.[69] 이를 위해서 원자료는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단계 절차를 따른다. 개방코딩은 원자료로부터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며,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는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통합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이다.[70] 본 연구에서는 축어록을 한줄씩 읽고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71] 그래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군종목사들의 의식이나 목회신학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개념을 명명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비교방법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화를 진행할 것이며,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공동적으로 도출되는 현상을 분류하여 범주화할 것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해체되고 분해된 자료 및 범주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이다.[72] 본 연구에서는 범주분석으로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인과적 조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현상, 어떤 현상에 속하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위치를 말하는 전후관계, 작용/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

[68] 최정호,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Ph diss.,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34.

[69] 최정호, 35.

[7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74.

[71] 서영석,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파주: 집문당, 2017), 33.

[72] 김영천, 379.

중재조건, 사건에 대처하는 전력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인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의 모형을 사용할 것이다.[73]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여 이론적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를 지향하는 과정이다.[74] 본 연구는 범주화된 군종목사들의 경험들을 선택코딩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핵심범주를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 경험들을 이야기 개요 작성, 이야기 재작성, 범주 간의 관계 시각화, 관계 검토 및 정리 등의 선택코딩을 위한 네 가지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75]

이렇게 세 단계의 코딩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는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솔직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필사본을 토대로 정리한 것을 읽어주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필사본을 받기 원하는 연구 참여자에게는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면담 내용 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불분명한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였으며,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면담 진행과 코딩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 방향과 수정과 연구 자료 분석 과정에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할 때 클레어몬트 교수진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온라인 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상세히 기록한 연구 과정에 대하여 질적연구의 확인 작업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자료들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보안 동의서에 서약한 이에게만 필사를 부탁하였으며, 면담 내용간 특정 인물이나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에 대해서는 00 으로 표기하여 익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연구자료들은 컴퓨터에 저장할 때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 보안에 최선을 다했다.

---

[7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80.
[74] 김영천, 383.
[75] 김영천, 384–85.

D. 연구 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근거 이론의 개방코딩을 통해 110 개의 개념, 38 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축 코딩 절차를 통해 범주들의 관계를 찾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개방코딩의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요소
• 단발성의 체험교육 • 상투적인 개념 제시	다문화 교육의 부실	다문화 경험에 대한 참여 노력 부족	인과적 조건
• 토론의 장 형성 부족 • 연구와 공유 부족	다문화 이슈에 대한 논의 부족		
• 소수의 다문화가정 장병 • 다수의 비기독교인 • 부대의 무관심 • 가족과 단절된 상황 • 도움배려용사로 낙인 우려 • 동화주의 정책	부대의 영향	돌봄에 취약한 군종목사	
• 섣부른 단정 • 타종교에 대한 경계 • 교회와 부대업무의 분리	군종목사의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 부족		
• 일과 이외 모임의 제한 • 예배 후 빠듯한 복귀 시간 • 다수의 군인교회 사역	군인교회 사역의 제한성		
• 부정적인 뉴스 보도 • 영화에서 부정적으로 묘사 • 다름에 대한 거부감 • 다큐멘터리를 통한 다문화가정 현실 목도 • 외국인 근로자 처우 관련 시사 프로그램 목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간접 경험	판단을 유보시키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 배경	
• 입대 전 목회현장 경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접 경험		

• 다문화가정 장병 어머니와의 만남 • 다문화가정 종업원과의 만남 • 선교사 자녀와의 만남 • 미 군종학교 교육 연수			
• 인성교육 교관 경연대회 • 다문화 소개 실무위탁 교육 • 선교현장실습 경험	교육적 배경		
•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 다문화가정 자녀 교회 출석	교회의 환대 경험		
• 역차별 우려 • 다문화 현상에 대한 무지 • 다문화가정 장병 인권에 대한 외면 • 다문화 기독교교육 필요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다문화적 효능감 결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	중심현상
• 목회적 답변 역량 부족 • 부족한 목회 경험 • 전문성 결여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역량 부족		
• 평소 생각 미흡 • 정리되지 않은 생각 • 다문화 관련 교육 활용 부족	가치관 정립 부족		
• 평상 과업 우선 • 자기 배속 부대 우선 •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 우선	우선순위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돌봄 준비 부족	맥락적 조건
• 문화적 배경 이해 부족 • 소수에 대한 관심 부족 • 자발적인 교류 부족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부족		
• 교회 공간의 부족 • 모임 시간의 부족 • 삶의 자리와 교회가 일치함에 따른 우려	다양성 배려를 불가능으로 인식	다양성 배려를 불가능으로 인식	
• 호칭 검토 • 외모 비하 발언 • 부모의 나라 비하 발언	상처될 요인 검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노력	중재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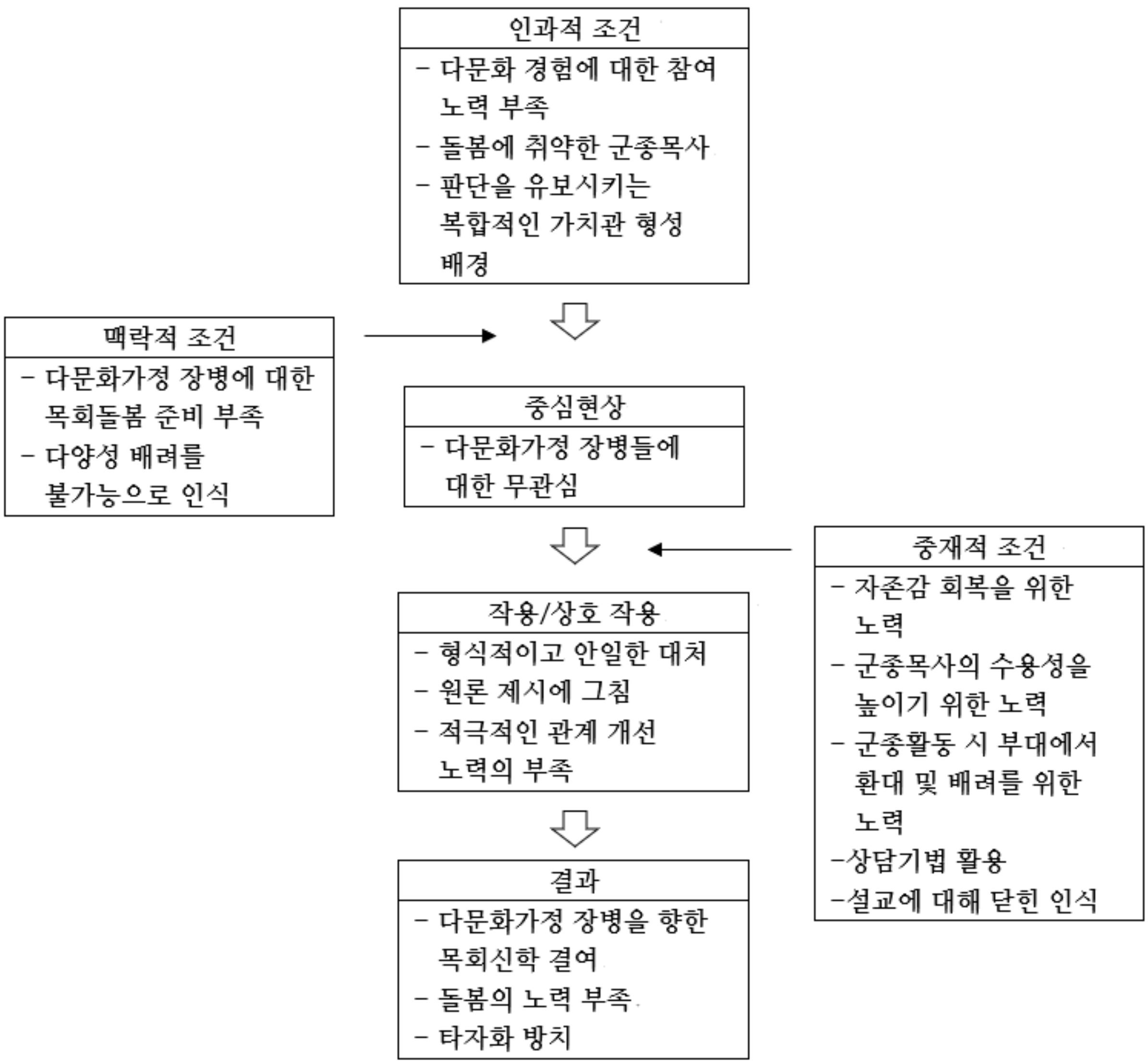
• 높임말 사용 • 바라보는 시선	존중의 몸가짐		
•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오해 • 군대에 올 정도면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	처한 환경의 특수성 인식	군종목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종교활동 보장 • 익명성을 보장한 상담 • 군종장교들과 협업 • 교회 계층 만남의 다변화	접근성 개선		
• 인사부서를 통한 정보 수집 • 신우를 통한 정보 수집 • 군종병을 통한 정보 수집 • 상담 전 정보 수집	사전 정보 수집		
• 다문화를 주제로 한 장병 인성교육 • 동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교육 검토 및 수정	부대 교육 계획 검토	군종활동 시 부대에서 환대 및 배려를 위한 노력	
• 국경일 및 기념일 등에 배타적인 민족적 자부심 표현 등에 주의 • 다문화적 상황 이슈화	부대 방침 변화		
• 격려와 위로 • 안정화 • 정면돌파	상담적 조언	상담기법 활용	
•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식	신앙 상담적 조언		
• 성서일과에 따른 본문 선택 • 불특정 다수 대상 • 특정대상 언급 회피	원론에만 집중	설교에 대해 닫힌 인식	
• 군대의 가치관 제시 • 성서적 관점 제시	위로보다 기준 제시		
• 동화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인성교육 실시 • 인권을 침해하는 심리검사 실시 • 부대 요청으로 비자발적 상담 실시	형식적인 대처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	작용/상호 작용

<table>
<tr><td>• 군종병에게 맡김
• 상담관에게 맡김</td><td>떠넘기기</td><td></td><td rowspan="6"></td></tr>
<tr><td>• 예배 참여 권유
• 신우회 모임 참여 권유
• 목회자 경험 반영</td><td>세심함이 없는 돌봄 활동</td><td rowspan="3">원론 제시에 그침</td></tr>
<tr><td>• 하나님의 사랑하심
• 하나님의 인도하심
• 나그네를 환대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td><td>군부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소개</td></tr>
<tr><td>• 맹목적인 적응 강요
• 숙명론으로 유도</td><td>충고와 조언</td></tr>
<tr><td>• 일시적 다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
• 인성교육 교안 포기
• 다문화가정 장병 소속부대 방문의 회피</td><td>소극적인 자기계발</td><td rowspan="2">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의 부족</td></tr>
<tr><td>• 이중언어 노력 포기
• 적당한 자기 노출을 통한 관계 형성
• 군종목사가 다문화가정 장병 편임을 인식시키기에 급급</td><td>소극적인 상담</td></tr>
<tr><td>• 다문화 기독교교육 필요성만 인식
• 목회돌봄을 적용할 수 없는 아쉬움
• 타의적인 개선 의지</td><td>개선에 대한 미흡한 자각</td><td rowspan="2">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신학 결여</td><td rowspan="5">결과</td></tr>
<tr><td>• 다문화가정 장병의 내면 외면
• 환대의 필요성 불감
• 신학적 사고의 부재</td><td>현실에 대한 불감증</td></tr>
<tr><td>• 교회 모임 시 방치
• 동화주의적 사고로 일관</td><td>돌봄의 대상에서 제외</td><td rowspan="2">돌봄의 노력 부족</td></tr>
<tr><td>• 일회적 상담
• 돌봄의 확산 노력 부족</td><td>지속적이지 못한 돌봄</td></tr>
<tr><td>• 심리적 위축 방치
• 고립 상태 방치</td><td>타자화 방치</td><td>타자화 방치</td></tr>
</table>

2. 축코딩(Axial Coding)

본 장의 연구결과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구성된 17 개의 범주는 근거이론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 모형에 재조합하여 적용한 결과 아래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축코딩 결과



먼저 인과적 조건에는 중심 현상을 일으키기 하는 원인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범주들을 함께 연결지어 구성하였다. 해당 범주에는 '다문화 교육 기회 부족', '돌봄에 취약한 군종목사',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이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들을 도출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경험에 대한 참여 노력 부족]

(연구참여자 B) 주위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나보았거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다문화에 대한 이슈들을 논의한 적이 없었고, 지역 군목단에서도 업무적으로 논의할 때도 그렇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생길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취약한 군종목사]

(연구참여자 F)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2부 순서를 갖거나 다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연대교회 예배를 마치면 바로 신병교육대로 가서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군종병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말고는 다문화가정 장병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계층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네요.

[판단을 유보시키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의 배경]

(연구참여자 D) 텔레비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을 기억해본다면 네팔에 있는 두 아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를 만나려고 엄마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남단에 있는 거제도까지 방문하게 되는 여정이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서프라이즈로 가족이 만나게 될 때에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찌나 감격이 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최근에는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재미있게는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았는데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중심현상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사건이다. 본 연구 결과의 중심현상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의 범주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참여자들은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무관심]

(연구참여자 A)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대에 다문화가정 장병이 또 한 명 있었네요. 선교사 가정이었는데, 어릴 때 러시아로 가서 스무 살까지 부모님과 살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 들어와서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군대에 대하여 너무 생소하게 생각해서 병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돌봄 준비 부족', '다양성 배려를 불가능으로 인식'을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돌봄 준비 부족]

> *(연구참여자 C)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내 열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병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조금 쉴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우를 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장병이라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성 배려를 불가능으로 인식]

> *(연구참여자 B) 다만 저는 부대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배려 도움 병사라고 지정하는 순간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도 비전캠프를 진행하였다가 폐지된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교회와는 다른 이유는 군인 교회는 삶의 자리와 교회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 현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현상에 대해서 '자존감 회복을 위한 노력', '군종활동 시 부대에서 환대 및 배려를 위한 노력', '상담기법 활용'은 작용/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조건이며, '설교에 대해 닫힌 인식'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건이므로 중재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또한 '군종목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억제가 되기도 하고 촉진이 되기도 함으로 중재적 조건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노력]

> *(연구참여자 E) 군대는 집단이 원하는 인재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는 뭔가 다르거나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군인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병들을 만나면 높임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군종병들에게도 절반 이상을 높임말을 섞어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병들도 저에게 '다나까'의 말투보다는 '했습니다'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휘관에게도 지휘관 호칭을 쓰지 않고, '집사님'이나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지휘관이나 간부도 교회에서는 상냥하고 지휘관 행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뭔가 치외법권과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종활동 시 부대에서 환대 및 배려를 위한 노력]

> *(연구참여자 B)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민족적 편견을 지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군의 날이나 국경일 등의 부대행사를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보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드는 민족적 편견이 드러나보이는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동화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상담기법 활용]

> *(연구참여자 E) 아버지를 따라 파라과이에서 16년 동안 살다가 귀화하여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스페인어가 모국어였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언어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왕따를 경험하기도 해서, 군대에 와서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몇 분 동안 안아주었어요. 기도를 요청해서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하였고, 그 후에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설교에 대해 닫힌 인식]

> *(연구참여자 B) 다문화에 대하여 설교시간에 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없는 설교인데 그래도 다수의 장병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처럼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군인교회와 군가족과 장병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그리 많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설교에서 그 내용을 다룬다면 약간 공허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군종목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연구참여자 A) 언어가 부족하고 외모가 달라보인다고 할지라도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할 정도면 충분히 이에 대한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만한 어려움이 없는 장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
> *(연구참여자 E) 항상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과에서 신상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장병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한해서는 인사과에서 신상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장병이 저희 부대에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확인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편부모 가정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문화 가정 장병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용/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로, '형식적이고 안이한 대처', '원론 제시에 그침',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의 부족'의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

(연구참여자 C) HTP 그림 검사를 했는데, 너무 투사적인 검사라서 이걸 진행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바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자체가 무의식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그 장병이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병에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원론 제시에 그침]

(연구참여자 A) 저희 교회에서는 전입 온 장병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예배 후 교육 및 교제의 시간이 있는데,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후 수료 전 마지막 주간 수요일이 되면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 때 다문화가정 장병만 따로 부르지는 않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부담 없이 교회에 와도 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교회에 몇 번 출석하였는데, 그 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의 부족]

(연구참여자 B) 몇 달 전에 부대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실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내려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너무 바쁜 일이 있었고, 다문화가정 장병은 부대에서 2명이 전부라 차라리 시간도 절약할 겸 유튜브를 검색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영상을 한 두 번 시청하였습니다. 아직도 실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신학 결여’, ‘돌봄의 노력 부족’, ‘타자화 방치’가 있는데, 관련된 대표적 언급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신학 결여]

(연구참여자 F)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한 목회신학까지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장병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회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문화가정 장병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봄의 노력 부족]

(연구참여자 A) 힘들고 외로울 때 부담 없이 교회에 와도 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번 나왔는데, 그 친구가 예배에 대하여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래 무교였고, 교회를 입대 전에 다닌 적도 없었고, 예배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부대에서도 군사 용어가 낯설어서 쩔쩔매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쩔쩔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쉬고 싶어했습니다. 또한 당시 지휘관은 장병들의 복지혜택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일에

종교활동이 과업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보장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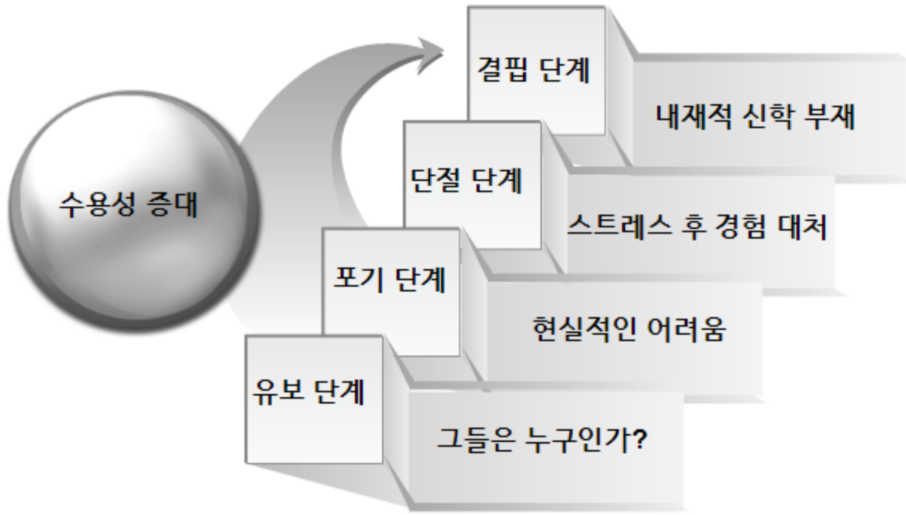
[타자화 방치]

(연구참여자 D) 저희 부대에 외모가 다른 장병들과 너무 달라서 놀림을 받는 일병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병은 다문화가정 장병이 아니었는데, 외모가 너무 이국적이어서 더욱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생활관에 다문화가정 장병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놀림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군종병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후에 일병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장병이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행정관이 따돌림을 주동한 장병을 다른 부대로 옮기게 하였는데, 저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패러다임과 범주의 연결 작업을 하기까지 6 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된 현상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면담을 하면서 받았던 느낌과 메모, 그리고 필사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부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준비해본 경험이 없음을 보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나 소재를 물을 때면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으며, 면담 후에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6 명 모두가 면담을 통하여 비로소 생각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자는 군종목사의 다문화가정 장병 경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유보 단계, 포기 단계, 단절 관계, 결핍 단계의 4 가지 하위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단계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군종목사의 다문화가정 장병 경험 과정분석 모델



유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체감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유보하는 단계를 경험하였다. 유보의 단계로 이행되는데 있어 영향을 준 심리적 또는 환경적 요인은 다문화 현상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과 가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도 거리감이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배속 부대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주위에서 공론화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뉴스 등의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간접 경험을 해보았지만, 긍정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질감을 형성시켜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직은 다문화가정 장병이 소수인 관계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부대의 상황과 부대의 동화주의 정책, 그리고 도움배려용사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장병의 소극적인 행동 등이 군종목사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유보시키는 현상을 강화시켰다.

포기 단계는 연구 대상자들이 대다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 부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군종활동의 제한적인 현실 등이 군종목사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어 나타나는 일종의

‘심리적 아노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방코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돌봄 및 배려 활동을 실시하려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상황에 대한 무지와 일과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게다가 군종목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평상 과업, 자기 배속 부대 과업,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 등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타 부대에 배속되어 있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관심 순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공간 및 시간의 제약과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소극적인 성향은 군종목사를 포기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포기 단계는 단절 관계로 이어졌다. 단절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과의 친밀하고 적극적인 관계의 경험을 차단시켰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목회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목회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부대 요청으로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실시하나 목회자 경험을 반영하여 억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타자화의 원인이 되는 동화주의적인 입장에서 군 복무규정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군종병이나 상담관에서 떠넘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향한 인성교육 교안을 만들기를 포기하고, 그들이 있는 배속부대 방문을 회피하였다.

결핍 단계는 유보 단계에서부터 시작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결과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단계는 목회신학의 결여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였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를 이루었다. 다만 어떤 기관이나 타인을 통해서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목회돌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확고하지 못한 목회신학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내면을 외면하게 되었고, 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타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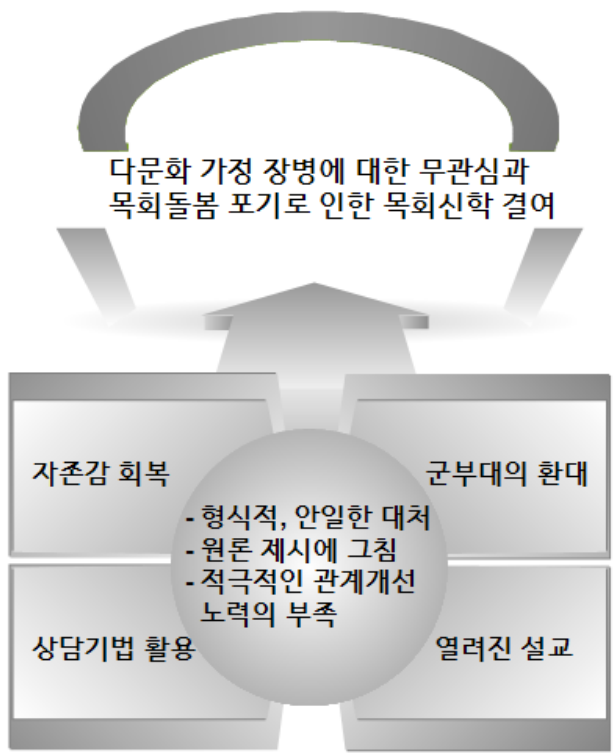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의 단계는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개념과 하위범주 구조분석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연관시켜 이론을 통합하는 단계이다.[76] 이를 위해 선택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의 의미를 대변하여 의미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목회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로서 이를 통합하는 연구의 핵심범주는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무관심과 목회돌봄 포기로 인한 목회신학 결여'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을 이해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 '다문화 교육의 부실'은 6 명의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바쁜 군종활동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우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군종목사의 적극적인 개입은 다문화가정 장병을 도움배려용사로 인식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을 위한 목회돌봄을 포기했다. 목회돌봄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군종병이나 상담관에게 맡김', '인성교육 교안 포기', '이중언어 노력 포기', '다문화가정 장병 배속부대 방문의 회피'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핵심범주인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무관심과 목회돌봄 포기로 인한 목회신학 결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범주 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 과 같다.

[7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84.

〈그림 3〉 핵심범주 이론 모델



E. 분석, 해석 및 결론

1.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환대하지 못한 요인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환대하지 못한 이유는 심층 면담 결과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현상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했으며, 군종활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엇보다 신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접한 적이 있어도 이에 대한 목회신학을 수립하지 못했고, 군부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적극성이 부족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다른 군종목사들과의 논의가 전무했기 때문에 군인교회에서 목회돌봄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미흡하였고, 적극적인 목회돌봄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타자화를 방치하게 되었다. 이에 군종목사가 다문화 효능감을 높여 다문화를 위한 목회신학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목회돌봄을 군인교회와 군부대에서 시작할 수 있다.

2. 지속적이지 못한 상담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담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다.[77]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78]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상담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하였다고 대답했다. 또한 성경에서 언급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진 다른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상담을 실시할 때 문화적 차이를 오해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확고한 기반 없이는 내담자에 대한 통전적인 변화와 성찰을 기대할 수도 없다.

3. 교회 공간의 창출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한 새로운 교회 공간의 창출에 대하여 6명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교회의 공간도 부족하거니와, 교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를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며, 다문화가정 장병 이외의 장병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공간 제공의 거부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는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오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이한 순혈주의나, 단일문화, 단일민족과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외세의 수많은 침입과 특히 일제 식민주의를 청산하면서 그것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여지도 없이 한국사회는 지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공동체 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성을

---

[77] 문희경, "다문화 가족상담의 현황과 목회상담적 과제," *신학지남* vol. 82, no. 2 (June 2015): 220-21.

[78] 문희경, 221.

마주하게 될 때, 그 사회의 개인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79] 실제로 서울시 다문화가정 거주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린 수준에서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을수록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0] 다문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국가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전지구적인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적합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81] 군종목사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집단주의를 경계하며 문화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하여 군인교회에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4.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20 대 후반부터 30 대 중반의 군종목사들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반응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양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를 수행할 때 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해 군대 내에서 타자화 및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 및 폭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군종목사들도 이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진행할 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의 선입견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6 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 4 명은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2 명만이 다문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화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군에 입대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군대 문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스스로 군대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다문화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군대 문화는 동화주의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생기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군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뉘는 요인은 다양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군종목사로 임관하기 전 다문화가정을 직접 경험해 본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데에는 모든 연구

79 김태원,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 공간과 정체성,"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April 2013): 38.

80 사경은, 기동환, and 이수기, "서울시 다문화 수용 인식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 분석," *도시설계* vol. 20, no. 3 (June 2019): 103-4.

81 김창근,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윤리연구* vol. 1, no. 118 (March 2018): 205.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성장 과정이나 목회 환경에서 다문화가정을 직접 접해본 이들은 주로 다문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한 연구 참여자들은 군대의 통합주의적 사고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었고, 군인 교회도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다원적 단일문화주의(plural monoculturalism)'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다원적 단일문화주의는 여러 문화들은 존재하지만 문화들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간과한 채 단일한 문화를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간주한다.[82] 이러한 시각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바라보게 되면 기존의 군대 문화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는 소위 하위 문화로 서열화되고, 더불어 그들에 대한 타자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은 군대 문화에 의해 지배당하고 마음의 식민지화까지 진행되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에 갇히게 된다.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곽 퓨란(Kwok Pui-lan)은 모든 사람들이 주체와 객체가 아닌 서로 주역들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식민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83] 이러한 관점은 교회 구성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오현선은 교회와 기독교인 역시 그들을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신념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오로지 전도 대상으로만 보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그들을 이웃으로, 사람으로 친구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84] 이러한 면에서 동화주의적 입장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다원적 단일문화의 시각을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대할 때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군대 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조건 하에서만 환대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연구참여자 A)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도 동화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별 없이 똑같은 병사로 보는 거죠. 다문화가정 장병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든지, 이런 건 오히려 그 장병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냥 동등하고 평범하게 똑같은 장병으로 대해주는 것이 부대에서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교회 안에서도 적응을 더 빨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2] 박흥순 et al.,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다문화교육 매뉴얼*, 73.

[83]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67.

[84] Russell, 88.

(연구참여자 F) 평소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고 교회에 나왔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료병사가 교회를 데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볼 때마다 '너 볼 때마다 전혀 모르겠어. 완전 한국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다음에 또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군부대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E) 지금 우리 사회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사교육비나 사회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취직하기가 요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E) 제가 만난 다문화가정 장병의 어머니는 조선족이셨는데, 철원에서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군종병들 회식 때 그 식당에 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돈을 벌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이 휴가 때에는 어머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연구참여자 B) 군대가 곧 다문화 공동체로 바뀔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바로는 다문화사회로의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농촌에 있는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였고, 그 중심에는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장병들의 성향이 통일교에 가까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포스트콜로니얼 신학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민가영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문명이라는 개념이 전통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개념임을 상기할 때 문명화를 명분으로 제국의 지배와 동화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제국이 자신을 '문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에 대비되는 타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문명화 과정은 어떤 것을 문명으로 정의하기 위해 그것이 결여된 가치와 실천을 피지배국의 특수하고 고유한 문화와 전통으로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수반했다. 이 과정은 피지배국의 다양한 가치와 실천을 삭제하고 특수한 가치와 실천을 보편화시켜 문화와 전통으로 만드는 동질화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동시에 지배국 내의 다양한 가치와 실천을 삭제하고 특수한

가치와 실천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전통으로 재현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85]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가치관과 목회돌봄이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화주의적 입장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한 환대에 있어서도 다소 긍정의 대답을 하였다. 다음은 동화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연구 참여자의 대답 중 일부이다:

> *(연구참여자 B) 다문화가정 장병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취급 받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소외될 수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부대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하여 '너는 한국인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 교육하였지만, 다시 부대로 돌아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문화가정 장병들만이 아닌 다른 나머지 장병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 기존의 동화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포용도가 높아지고 있다.[86]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보았을 때, 앞으로 군종목사들의 목회 방향도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리라 판단된다. 더불어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군인교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이 모두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면담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였고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선이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목회돌봄의 경험이 부족하였고, 확고한 목회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목회돌봄이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문제 의식과 다문화 기독교교육을 통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답한 군인교회에서의 목회돌봄의 방향성은 〈표 4〉와 같다.

---

[85]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문화와 사회* vol. 9 (November 2010): 116.
[86] 서운석, "한국사회의 국제개방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191.

〈표 4〉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돌봄 방향성

방향성		근거
상호의존 관계 형성	마음을 열기	*(연구참여자 C)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식탁의 교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몸을 부대끼고 자신의 생각을 부담없이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생전 처음 본 외국인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생기고 라포가 형성되는데,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장병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을 경험하기	*(연구참여자 D) 사실 군종목사와 군인교회 공동체가 위문 위주의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위문의 원초적인 의미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따뜻함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된 순간을 풀어주어 마음에 여유를 주는 사역이 앞으로의 목회돌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낯설음을 유도하는 시선 지양하기	*(연구참여자 C) 다문화가정 장병을 향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시선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민족 사회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직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민족 문화라는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똑같은 머리카락 색깔, 똑같은 눈동자, 똑같은 피부 색깔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선이 그들과의 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갈등 회복	다문화에 대한 소양 넓히기	*(연구참여자 A) 군종목사가 먼저 다문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적으로 대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 경험이 달라서 신체 접촉에 대한 예의나 생활습관에 대하여 실수하다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장병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	*(연구참여자 F)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장병이 있다면 군종목사가 직접 근무지를 찾아가서 인사부서와 협조 하에 갈등 관계를 풀어주고 유연한 군생활이 되도록 돕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환대 실천	환대적 예배	*(연구참여자 E)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부분들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설교나 찬양 등에서 쉬운 언어와 그들의 언어를 병행해서 표기하거나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군종병이나 군가족들이 붙어서 따로 배려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환대	*(연구참여자 B) 연대교회나 대대교회들은 개교회 시스템으로는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군종목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It's ok!'나 '선샤인 캠페인', 그리고 '행복 플러스' 등의 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특정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병들과 더불어 시행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도 힘들어하는 장병들을 위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관계성의 전환을 목회돌봄의 방향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관심으로 인해 소원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대면관계를 형성하여 마음을 열게 하며, 따뜻한 감정을 전달함을 통해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차별의 시선을 바꿔 상호의존의 토대를 쌓고자 하였다. 또한 차이를 외면하여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이해의 기회로 삼아 다양성의 인식을 확장하여 평화를 지향하였다. 더불어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타자화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배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환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났던 군종목사들이 희망하는 목회신학이 무엇인지를 좀더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근거해서 환대지향의 목회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pter Ⅲ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

군종목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들은 목회자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 정립과 목회돌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하여 신학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해를 통한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A. 포스트콜로니얼리즘

1.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식민 이후라는 단선적 역사에서의 시기나 식민지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위계적인 지배관계를 은유하면서 과거 식민지배국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지배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있다.[87] 그런데 이러한 지배관계에 대한 재현 양식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나 은밀한 표현 등의 심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확대된다.[88] 따라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탈식민화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특히 일제 식민주의를 경험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대표적인 상징질서로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가들은 민족이라는 용어가 전지구적으로 형성된 포스트콜로니얼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여긴다. 외부의 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을 통해 형성된 민족주의는 외세로부터 잃어버린 민족 공동체가 걸어 온 과거의 역사나 그들의 전통과 관습, 문화 양식 전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순혈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이다.[89] 민가영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에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될 때 자신이 본국에서 경험했던 자국 내의 이질성과 타국민이 자국을 바라보는 민족주의의 동질성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치관 혼란을 겪는다고 말한다.[90] 예를 들어

---

[87]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경제와 사회* no. 70 (June 2006): 66-68.
[88] 이나영, 67.
[89] 양종근, "민족주의/탈식민주의, 보편성," *인문연구* no. 67 (April 2013): 296.
[90]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109.

일본인 이주 여성들은 일본의 야쿠자 등의 현상은 일본 내부에서조차 극히 극우 성향을 띤 일부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는 일본 전체에 대한 재현으로 인식되어 양측의 동질성의 신화를 깨버린다는 것이다.[91]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선과 대우가 본국에서의 삶의 양식과 교육의 정도에 상관 없이 가치절하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은 한국 사회로 편입한 다문화가정이 경험해야 하는 노동이 자신의 교육적 정도나 능력에 비하여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상복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인종주의적 태도와 차별을 가하는 이유를 프란츠 파농을 빌어 설명한다. 파농은 정신분석의로서 정신질환을 분석하다가 환자들의 자아상실과 소외가 식민지 체제 때문임을 파악하고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에 나섰다. 그가 생각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모두가 역사의 주체가 되고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력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92] 또한 파농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탈식민화 뿐만 아니라 정신적 탈식민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를 빌어 하상복은 *황색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에서 흑인의 열등 콤플렉스와 백인과의 동일시에 대한 집착이 한국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간주한다.[93] 다시 말해 한국인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멸시와 차별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보다 더 백인화 되었다는 착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구의 식민적, 종속적 근대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우월성에 따라 타자인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94] 다만 파농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해서 보려는 비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민주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살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피식민인을 행위 능력이 없는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사고에 머무를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식민지배가 일종의 담론체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이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

[91]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109.

[9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2006), 55.

[93] 하상복, “황색 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no. 33 (June 2012): 532–35.

[94] 하상복, 536.

영문학자이다. 그는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서구의 관점에서 동양을 타자로 규정하고 식민화하기 위한 카테고리이며 이로 인하여 식민주의라는 폭력의 역사는 미래의 세계사를 서구와 비서구의 뿌리 깊은 대립과 갈등의 연장으로 예견했지만, *문화와 제국주의*에서는 기존의 지배국의 피지배국의 역사, 문화, 경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95] 더불어 대위법적인 역사의식으로 타자를 아우르는 비전을 가지고 저항할 때 비로소 자기 해방과 보편주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96] 그러나 여기서의 저항이란, 서구의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엘리트 지식인이 주도하는 저항의 문화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섭은 이러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우리 사회에 유용한 바가 많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은 일제의 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또 다른 방식의 형태로 오리엔탈리즘을 강화하면서 다른 식민지들과 달리 복잡한 양태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97] 이 오리엔탈리즘은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대학의 아카데미즘뿐만 아니라 한국 대형교회들까지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98]

호미바바는 인도 출신으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정신분석학의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담론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저항담론으로서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문화주의적 담론으로 이동시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바바는 저서 *문화의 위치* 서문에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문화적 차이가 접합할 때 사이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사이(in-between) 또는 틈(interstice), 중첩(over rapping), 전치(displacement)라고 말한다.[99] 이 공간은 기존의 중심과 주변, 혹은 다른 두 문화의 경계 사이의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 기존의 구조 및 전통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제 3의 공간은 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잇는 접경지대, 통로로 작용하며 문화적으로 혼종성(hybridity)의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

[95] 곽정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저항: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vol. 20, no. 2 (June 2012): 16, quoted in Bart Moore-Gilbert, *Postcolonial Thoery: Context, Practices, Politicsus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trans. 이경원 (서울: 한길사, 2001), 107.

[96] 곽정연, 17.

[97] 김경섭, "탈식민주의와 포스트탈식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현대사상* no. 2 (May 2008): 118.

[98] 김경섭, 118.

[9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10.

박상기는 이러한 전지구적인 현상이 무수한 경계와 차이들 속에서 무한히 파생되고 장려될 때 사회적 경계와 대립의 구도들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호미 바바의 글을 빌어 말한다.[100] 다만 호미 바바가 말하는 제 3의 공간이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2. 목회신학의 적용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의 관점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타자화된 처지를 이해하고,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군종목사의 목회신학 형성에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군종목사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함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실천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김혜란은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실천신학이다. 그래서 실천신학의 목표는 고통에 대하여 해방되고, 치유하고, 자유하고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01]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군대 안에서 언어와 인종, 그리고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다른 장병들과 달리 군 생활에 있어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질 수 있다. 이 취약성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된다.

톰 레이놀드(Tom Reynolds)는 취약성은 "평등과 차별, 공통의 공유, 그리고 구별되는 재능을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의존의 관계를 열어간다"고 말한다.[102] 더군다나 '인간(人間)'이라는 한자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人'과 '사이'를 의미하는 '間'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된다. 이는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이며,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존재가 사람임을 나타낸다.[103]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상호의존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나 성장은 단순하지 않다. 곽 퓨란(Kwok Pui-lan)은 "인종, 민족, 성별, 계급,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수한 방식으로 서로

---

[100] 고부응 et al.,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223-55.

[101]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une 4, 2018).

[102]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28.

[103] HyeRan Kim-Cragg and Joanne Doi, "Intercultural Threads of Hybridity and Threshold Spaces of Learning," *Religious Education* vol. 107, no. 3 (May/June 2012): 268, quoted in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41.

복잡하게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다”[104]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바니 밀러-맥니모어(Bonnie J. Miller-McLemore)는 “가정은 가정과 세계, 영성과 정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열에 대하여 바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소다”[105]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정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범위가 확대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그 일을 또한 도울 수 있다.

교회는 가정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사회경제적 계층 등 가능한 모든 면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06] 군인교회는 장병들의 특수성에 기인한 가족과 격리된 병영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갈등들을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돌봄 공동체이다.[107] 군인교회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목회적인 돌봄과 상호의존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자서전인 *Out of Place* 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의 삶을 ‘수많은 정체성으로 인한 불안감(unsettled sense of many identities)’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복잡성은 물리적, 지리적으로 이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발견된다.[108] 다문화가정 장병들도 군에 입대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그렇다면 군인교회에서 군종목사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임마누엘 라티(Emmanuel Y. Lartey)는 “포스트콜로니얼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하여 고정화된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되며 다른 목소리들(other voices), 이를테면 생각이나 의견이 감추어져 있거나, 무시되어 있거나, 거부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109] 나아가 김혜란은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서로가 주체가 되는 ‘상생(相生)’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장에서 논의된 ‘인(人)’의 어원과 더불어 또 다른 한자어는 이를 더욱 분명히 한다. 문자 그대로 ‘상생’(相生)은 ‘상호생활(mutual life)’ 또는 ‘공동생활(co-living)’로 번역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두 번째 글자 ‘생(生)’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이상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

[104] Kim-Cragg, *Interdependence*, 51.

[105] Kim-Cragg, 53.

[106] Andreas J. Köstenberger and David W. Jones, *God, Marriage, and Family 결혼과 가정*, trans. 윤종석 (서울: 아바서원, 2016), 318.

[107] 이광순,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을 위한 제안,” *장신논단* vol. 36 (December 2009): 241-43.

[108] Kim-Cragg, 133.

[109] Kim-Cragg, 117.

실존적인 삶의 차원을 가리킨다. 또한 육체적인 삶을 위한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문제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은 생활을 의미하는 '삶'과 동일시된다.[110]

'상(相)'이 서로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뜻한다면, '생(生)'은 치열한 삶 자체를 뜻한다. 군인교회는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이러한 '상생'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환대의 대상이며 또한 환대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군종목사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통해 군인교회가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해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훨씬 오래 전부터 히브리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주와 보호를 위하여 피난 안식처의 필요를 인정하였다.[111]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도피성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도피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피난처이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의가 아닌 실수나 과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시키기 위함이다.[112]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소외받고 타자화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였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고백하였다 (시편 142:5). 그리고 그 도우심의 경험으로 다윗은 아둘람 굴에 거하면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사무엘상 22:2). 마틴 루터(Martin Luther)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 보름스의 제국의회 후에 구교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걱정하였던 작센(Sachsen)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 세(Friedrich Ⅲ)는 루터를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에 몰래 숨겨 약 10 개월동안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루터는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였고, 이를 통하여 독일인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타자화된 존재가 아닌 함께 참여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었다. 더불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도 나올 수 있었다. 최근에 미국의 각 교회에서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불법 이민자를 위하여 피난처 교회가 되어주자고 하는 운동이

---

[110] Kim-Cragg, *Interdependence*, 174.

[111]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35.

[112] 채형욱, *100주년기념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348. 여호수아 20:3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일어나고 있다.[113] 해당 교회들은 트럼프 정부가 표면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색인종을 타자화시키는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각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들을 위하여 피난처가 되어주며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도와줄 방도를 구해주고 있다.[114]

군인교회도 동일하게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대체적으로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해명할 상황이 생기거나 소통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군인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대 안에서도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 발동하게 되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소극적일 수 있고 타자화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115] 이로 인하여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이 말한 것처럼 다문화가정 장병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116] 또한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문화에 대한 무지나 미흡한 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대하여 군종목사는 찾아가는 군종활동을 통해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고, 군부대 및 군인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소양을 넓혀가며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더불어 종파를 초월하여 군종 장교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

---

[113]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2017년 3월 뉴욕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며 처음 시작했다. 이후로는 LA 뿐만 아니라 미국전역의 다른 주와 대도시의 교회들도 참여하면서 점차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는 100여개의 한인교회가 가입되어 있다. 주로 다카 드리머와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입 교회들은 추방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센터교회', 이민자 관련 시스템과 법을 바꾸는데 이바지하는 '후원교회', 이민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돕는 '복지교회'로 세분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보호교회 심포지엄, 만나와 메추라기 사역을 통한 물품 공급, 자전거 순찰대 결성을 통한 단속 감시를 계속하며 이민자들을 계속 돕고 있다.

[114] 이민,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1일," *아멘넷 뉴스*, accessed August 15, 2018, http://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6448.

[115] 서양이 동양에 대하여 타자화하고 주변화하였던 헤게모니적인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주변의 동양인 및동양사회를 타자화하는 경향을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다.

[116]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ed. Sarah Harasym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0), 158, quoted in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4.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은 'Can Subaltern speak?'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서발턴(subaltern)이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를 비판하였다.

셋째,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해는 군종목사들에게 군인교회가 '제 3 의 공간'(the Third Space)[117]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김혜란은 *Story and Song* 이라는 책에서 타자화된 '서발턴'(subaltern)[118]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혼종성'(hybridity)[119]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서발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선주민의 공동체와 만나게 되면서 두 문화의 경계에서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다문화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문화를 인정해주는 공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 곳이 '제 3 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최순양은 '제 3 의 공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는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탈식민주의자들이 사용한 '경계선상(borderline)'이나 '사이(in-between)'의 개념을 통하여 서발턴의 다양성을 더 확장한다고 말한다.[120]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제 3 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문화의 의미의 짐을 나르는 것은 상호(inter)의 공간(전이와 교섭의 첨예한 가장자리, '사이에 낀[in between]'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이 공간은 민족적이면서도 반민족주의적인 '국민(people)'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같은 제 3의 공간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양극성의 정치학을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타자들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121]

한국군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대하여 아직까지 '동화주의 정책'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122]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공간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심리적 차별과 이질감을 줄 수 있다. 뿐만

117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311-19.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정체성 형성(속지/속인), 배경, 출신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들이 공생하는 공간을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 설명했다..

118 김헌기, "서발턴 연구와 역사의 한계," *오늘의 문예비평* no. 112 (March 2019): 21. 서발턴은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용했던 개념으로, 계급, 카스트, 나이, 젠더, 직위의 견지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어떤 사회에서의 종속의 일반적 속성을 가리킨다.

119 김호웅, "중국조선족, 그리고 제3의 영역과 이중문화신분,"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February 2010): 87. 호미 바바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특징인 전지구화현상으로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식민지인이 식민지배자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이쪽이라고도 저쪽이라고도 단정지을수 없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현상을 '혼종성'(hybridity)으로 설명했다..

120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 vol. 72 (June 2013): 232.

121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93.

122 박단, "프랑스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 *이화사학연구* no. 35 (December 2007): 47. '동화'(assimi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니라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인 폭력집단이기 때문에 규율에 따라 육체적인 억압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장병들이 다문화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군대라는 공간이 갈등이 증폭되는 병영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군인교회는 다양성의 확장을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제 3 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군인교회는 군대에 속한 교회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군 문화의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질서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더불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교 지향적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교회는 선교 대상자인 장병들이 중심이 된다. 장병들을 섬기고, 장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병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탈계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3 장 1 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5 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그들이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출신지가 다양하다. 북아프리카, 다소, 예루살렘, 구브로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모였다. 또한 인종적으로도 다양하다. 시므온은 니게르 출신임을 볼 때 흑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123] 루기오는 헬라인 또는 헬라화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마나엔은 유대인,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다.[124] 마찬가지로 군인교회도 장교 대표, 부사관 대표, 여신도 대표, 장병 대표가 어우러져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진 교회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징집되어 입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편향적이지 않다. 그리고 공간사용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군인교회는 언어와 인종, 그리고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배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함께 하는 '제 3 의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

B.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

1. 환대의 이해

환대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레비나스는 유대인이고 러시아 문화의 환경에서 자라났다. 성경과 더불어 러시아 문학에

동화라는 의미를 정책적으로 주장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동화주의이다. 따라서 동화주의란 한쪽이 다른 한쪽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한 일방적 통합정책을 의미한다. 동화주의는 프랑스에서 이민자 정책을 세우면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다른 문화공간에서 취득한 본래의 관습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23]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서울: 포이에마, 2012), 101.

[124] 김형국, 102-6.

심취하였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자신의 고향이 독일에 함락되어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지만,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서양철학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125] 특별히 레비나스는 인종 학살과 폭력의 비극적인 참상을 목격하면서 자아 중심적이고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을 부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주체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126] 그 이후 레비나스가 발견한 주체란 타인을 환대하고, 타인을 대신하는 삶이다.[127] 이러한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타자를 인식하게 하고,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촉구한다. 윤리는 타인과 내가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며, 내가 맺는 관계는 대화이다.[128]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하여 타인의 질문에 노출되는데,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나는 책임지는 자가 된다.[129] 이를 통해 인간은 타자, 즉 이웃과 타인에 대하여 책임적이고 연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디트리히 본회퍼의 윤리는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다. 본회퍼는 현실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교회의 투쟁에 나섰다. 당시의 독일교회는 나치의 독재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나치를 반대하는 신학자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하였지만 나치에 의하여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본회퍼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이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제한된다.[130]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서는 안될 하나의 한계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어지고 만다. 결국 인간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타자로부터 단절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시며 교회를 남기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리적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를 형성해 가는

---

[125]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June 1995): 147.

[126] 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no. 57 (March 2014): 165.

[127] 박봉섭, "타자의 윤리와 정의에 관한 연구" (ThM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8), 6.

[128] 박봉섭, 15.

[129] 박봉섭, 16.

[130] 김현수, "타자 대면의 방법들: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 윤리에 대한 한 해석," 279.

것이다. 따라서 타자와의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매개되며 타자와의 건전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131] 그래서 레비나스의 환대에 기초한 타자의 윤리를 우선시하는 정의는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그리고 세상의 현실로 확장하여 본회퍼가 말하는 타자를 향한 대리적 행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레티 러셀은 이러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타자의 해석학으로부터 환대의 해석학으로 옮기게 한 사람이다. 러셀은 저서 *공정한 환대에서* 스스로를 주위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한다. 그 이유를 백인도 아니고, 유럽계 미국인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하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강건하지도 않고,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변인의 삶으로 살았던 삶을 선물로 고백한다. 이 경험으로 본인이 환대의 목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132] 그녀는 환대를 실천하는 이유를 교회의 소명이라고 설명하며, 환대의 신학을 통하여 정의, 평화, 그리고 자연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133] 더불어 차이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긴장-속의-일치'가 아닌 '환대-안의-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정애성은 러셀의 저서를 빌어 차이를 두려워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은 우리를 지배해왔던 식민주의적 억압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식민주의적 경험이 우리 내부의 장벽으로 교묘하고 복잡한 혼종으로 옭아매는 것을 경계한다.[134] 최유진은 문화적 다양성을 품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배타성을 말하면서 소위 정상성에 들지 못한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135] 이에 대한 대책으로 러셀이 제시한 교회에서의 원탁의 모임을 언급하면서 이 모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서로 꺼려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연결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136]

환대(hospitality)라는 말은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환대는 적의를 가진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들을 가족과 같이 맞이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환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며, 휴식의 자리를 제공하고,

---

[131] 김현수, "타자 대면의 방법들: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 윤리에 대한 한 해석," 289.
[132]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7.
[133] Russell, 47.
[134] 정애성, "공정한 환대: 환대에 대한 주변부의 상상력," *기독교사상* (March 2013): 109.
[135] 최유진, "레티 러셀의 교회론: 정의와 환대의 공동체," *장신논단* vol. 1, no. 48 (March 2016): 246.
[136] 최유진, 231.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는 타자 중심의 개념이다. 이 환대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철학자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이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대는 타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타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주인의 편에서 베푸는 일종의 시혜가 되는 '관용'을 비판한다.[137] 관용은 선한 얼굴을 가장했지만 심중으로는 일정한 선을 그어 넣고 그 일정 부분까지만 용인하겠다는 한계를 가진 태도라는 것이다.[138] 이처럼 타자가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면 타자의 주권성은 하위개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주인에게 동화된 타자에 불과해질 것이다. 데리다는 그러한 조건적인 환대 또는 초대의 환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주인 측에게, 맞이하는 측에게 초대할 사람을, 방문객을, 손님을 요컨대 비호를 제공하거나, 방문 올 권리나 환대받을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선택할 필요성, 선출할 필요성, 선별할 필요성, 선정할 필요성이다. 자기-집에 대한 자기의 지상권이 없으면 고전적 의미에서 환대란 없다.[139]

여기서의 조건적인 환대는 내 울타리에서 조건을 따르는 이방인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적 환대는 제한적이며, 환대 스스로는 배반하는 환대가 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환대 또는 방문의 환대는 예상하지 않는 방문과 기대하지 않은 방문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고 환영한다.[140] 이와 같이 환대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나의-집을 개방하고, 이방인(성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위상 등을 가진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이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도 줄 것을, 그리고 그에게 장소를 줄 것을, 그를 오게 내버려둘 것을, 그러면서 그에게 상호성(계약에 들어오기)를 요구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조차도 묻지 말 것을 필수적으로 내세운다. 절대적 환대의 법은 권리와 결별할 것을, 권리로서의 법 또는 정의와 결별할 것을 명령한다.[141]

강남순은 이에 동의하면서 코즈모폴리턴 환대로 시각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

137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4, no. 36 (December 2012): 142.

138 김광기, 142.

139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ė 환대에 대하여,* trans.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89.

14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78.

141 Derrida, *De l'hospitalitė 환대에 대하여,* 70.

실제 환대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종교적 논란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이주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 난민, 망명자, 다문화주의 문제 등 타자를 타자화하는 포용과 배제에 대한 문제들과 얽혀있기 때문이다.[142] 이를 위해서 강남순은 자신과 타자를 '우주 시민'(cosmic citizen)으로 보는 코즈모폴리턴 의식을 가지라고 말한다.[143]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력과 정치에 의해 이웃이 아닌 얼굴 없는 존재들, 비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웃 사랑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라고 말한다.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수많은 타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의 범위를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가까운 대상들로만 한정할 경우 타자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부대, 내 공동체만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환대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어떠한 종류의 조건이나 경계에도 구애받지 않는 모든 인간이다. 그래서 환대 신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아웃의 존재를 '아는 일'이다.[144] 이웃을 확장하는 넓은 시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타자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제도화된 종교와 주어진 과업 틀에서가 아닌 일상 속에서 사랑, 연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환대는 나를 비롯한 군종목사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2.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이란?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이란 타자화된 대상에게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환대를 통해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상생의 목회를 추구하는 신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자, 주인과 손님 간의 경계를 허물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성별, 인종, 공동체의 소속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환대의 대상자를 통해 자신과 타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통전적 신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14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78.
143 강남순, 218.
144 강남순, 229.

목회신학의 어원은 '목양'을 뜻하는 형용사인 'pastoral'에서 유래되었는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와 예배, 나아가 선교까지 일컫는 목회 전반의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45] 그렇기 때문에 목회신학은 학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해 가야 한다. 이희철은 실천적인 목회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 간 환대의 표현을 통해 화해의 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정은 서로의 정체성을 '알아줌'(recognition)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즐거운 책임'(joyful responsibility)으로 이어지며, 또한 타자에 대한 알아줌을 위해 '질문하기'(questioning)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146] '알아줌'은 상호간에 정체성을 형성시키기에 도움이 된다면, '즐거운 책임'은 관계의 연대성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며, '질문하기'는 고통에 관심을 가짐을 통해 돌봄의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신학을 확립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화해를 추구하는 환대의 표현을 통해 목회신학을 실천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군부대와 군인교회에서 불특정 다수의 타자에게 찾아가는 존재이다.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초대를 통해 타자화된 공간에서 환대의 공간으로 즐거운 책임의 다리를 놓는다. 또한 내면의 고통에 대해 질문함을 통해 연민적 시선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상황에 따른 돌봄의 목회신학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신학이 계속적이며 상황에 따른 돌봄의 목회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안목과 민감성이 필요하다.[147]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목회신학은 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억압받고 소외받는 다문화가정의 현장을 계속 주시하며 돌봄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효능감을 유지해야 한다. 즉 고립된 개인의 경험만이 아닌, 복잡하게 얽혀진 망 속의 존재하는 경험으로 이해하여 개인의 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선을 통해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공신학으로서의 목회신학을 실천해야 한다.[148] 성경은 외국인들에게 환대를 베풀 것을

---

[145] 이효주, "목회신학이란 무엇인가: 실천신학과 공공신학과의 관계 안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no. 112 (April 2019): 224-25.

[146]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의 환대: 환대의 목회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 no. 1 (April 2013): 314-17.

[147] 이효주, 234.

[148] 이효주, 246.

말하며, 외국인들이 공공신학의 대상자가 된다고 말한다.[149]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윤리적 규정으로서의 무조건적인 환대를 말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의 환대는 법의 이행을 통한 조건적 환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벽에 부딪힌다.[150] 강남순은 환대의 신학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첫째, "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 그리고 이 우주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ethics of singularity)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대의 신학"이란 개인적 구제나 관대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이다.[151]

더불어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목회자의 '예언자적 소명'이 필요하며,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며 좋았다고 선언하는 절대자의 진리를 환대를 위한 목회신학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152]

그러나 김기철은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이라는 학술논문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전에 다문화적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나 돌봄의 지침도 없으며 교단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없었다고 지적한다.[153] 다만 한국인이 오랫동안 구현해냈던 독특한 '정'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목회자들은 일방적인 행위로 환대를 시작하지만 환대의 과정 속에서 상호적인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며, 환대의 결과로 '전적 타자'(The Wholly Other)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154] 일방적인 행위의 환대가 상호적인 행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문화가정에게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목회신학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수자가

---

[149] 채형욱, *100주년기념성경*, 177. 레위기 19:33-4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50]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no. 668 (August 2014): 241.

[151] 강남순, 248.

[152] 강남순, 249.

[153]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no. 86 (June 2016): 153.

[154] 김기철, 171.

조건적인 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에서 확립되고 사회로 확산시켜 나갈 때에 환대를 실천하는 공공성을 확립한 목회신학을 실천할 수 있다.

C. 환대의 대상: 다문화가정 장병

다문화가정은 해외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형성한 가족공동체를 말한다.[155]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가족 전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인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가정 장병이란 장병의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쪽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 출신의 자녀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말한다.[156] 그동안 인종과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국민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군 입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57] 다문화가정은 일반적으로 형성 원인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가정으로 나눈다.[158] 국제결혼가정이란 한국인들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형성한 가정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들이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가족단위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 이탈 가정이란 북한 이탈 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2세들에게 군생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병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대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병사들을

---

[155] 다문화가정이란 해외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형성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법률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9932호)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귀하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자와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56] 임영섭, "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 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ThM diss.,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2015), 14.

[157] 고범준, "20대 남 급감에 가시화하는 다민족, 다문화 군 전투력 영향은," *조세일보*, accessed November 29, 20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6_0000821520&cID=10301&pID=10300.

[158] 박안서,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42.

활용할 병영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159] 한국군의 다문화 군대로의 진입은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장병의 증가로 인하여 군대 내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D. 환대의 주체

1. 군종목사

군에서 활동하는 성직자를 호칭하는 '군종(chaplain)'이라는 단어는 성 마르티노 경당(Cappella)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담당사제'(Cappellanus)에서 비롯되었다.[160] 군종은 특수한 기관, 즉 군대, 병원, 학교 등에서 교역하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종교인을 두고 일컫는 용어다. 한국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장교로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군종장교'라고 하고 이중 기독교의 목사를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군종목사'라고 부른다. 군종목사의 신분은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 참모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종단으로부터 파송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진다. 이는 군종목사가 법적으로 장교와 목사로서의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군종장교는 장교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이며, 소속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이고, 장병의 상담자이며, 목회 및 교육을 통한 선도자라 규정할 수 있다.[161] 또한 군종목사는 지휘관의 특별참모로서 지휘관에서 참모 및 지휘 조언을 하며, 각종 회의, 부대 행사, 훈련, 위문, 교육, 상담, 군종행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162] 더불어 군인교회에서는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신우회를 통해 장병들의 삶의 문제와 함께 하며 통전성을 찾도록 돕는다.[163] 그렇기 때문에 군종목사가 다문화 현상에 대한 분명한 목회신학이 정립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다문화 효능감을 높이고

---

159 김선영, "늘어나는 다문화 장병, 한국군 변화 시급하다," *세계일보*, accessed November 29, 2019,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3878.

160 윤선자, "한국 군종 활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기독교사상* vol. 654 (June 2013): 36.

161 고재천, "초급 군종목사의 군생활 갈등 경험 연구" (ThM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7), 9.

162 고재천, 9.

163 김천, "신세대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공군선교전략" (ThM dis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26-30.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군부대나 군인교회에서 타자화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2. 군인가족

군인가족들은 대부분 군인교회에서 신우섬김이 교사를 맡는다. 보통 부부단위로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장병들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일 예배 후에 실제적으로 장병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기도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장병 상담과 선도의 최일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164] 또한 현역인 남편이 함께 신우섬김이 교사를 맡기 때문에 평일에도 장병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게다가 군인가족들은 장병들을 향해 상호의존을 실천할 수 있다. 군인가족들은 대체로 2-3년을 주기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군부대 지역에 따라 큰 문화적 충격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역사회에서 군부대 시설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는 민간인들로 인해서 거부와 소외를 경험한다. 군가족 자녀들은 자주 이사를 경험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힘들고, 텃새가 심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소위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학업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았기에 군인가족은 누구보다 차별과 고통을 당하는 장병들에게 감정을 전이하여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대의 좋은 모델이 된다. 그도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타자화됨을 경험하였기에 상호의존을 더욱 앞장서서 실천하였던 사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타자를 억압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군인가족들도 얼굴을 마주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장병들에게 들어주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

3. 군인교회 장병

군인교회 장병은 같은 군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세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청년의 시기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자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 지휘관들은

[164] 김천, “신세대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공군선교전략” 30.

시간의 부족함과 업무의 과중함으로 부하와의 대화 기회를 기피하거나 상보다는 벌, 설득보다는 강요에 의한 지휘로 인간적인 만남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165] 행정관이나 주임원사는 만남의 기회가 있어도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들어주기 보다는 간부의 입장을 주입하고, 주위에서 느낀 선입견 등으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166] 게다가 민간에서와는 달리 군부대에서는 간부의 필요에 의해서 대화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기 쉽다. 그런 면에서 군인교회 장병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모두 타자화를 경험하고 소외나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김용일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집단과 구별되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여전히 크고, 특히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적 차원이 편견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67]

---

165 김용일, “군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ThM diss.,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8), 29.

166 김용일, 14.

167 김용일, 14.

Chapter Ⅳ
목회신학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실천 방안

포스트콜로니얼을 통한 다문화 이해와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나는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 기독교 평화교육의 이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기존의 한국사회와 이주민의 경제적인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선주민의 시각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하다.[168] 게다가 이 관계가 우월의식 또는 열등의식을 수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인종간의 차이를 '차별화'하는 폭력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169] 다시 말해서 이 폭력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평화의 영역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 내재된 폭력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종목사들에게 기독교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에 공존의 대상으로 다가온 이주민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며 폭력을 예방하는 평화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성서의 이해는 기독교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성서적 평화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170] 구약에서는 평화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샬롬(שָׁלוֹם)'이 쓰인다. 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과 국가, 공동체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며, 개인과 타인,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를 포함해서 종말론적 차원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최종적 구원을 가리키는 포괄적, 통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71] 신약에서는 평화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에이레네(εἰρηνη)'가 쓰인다. 에이레네는 샬롬의 평화개념을 동일하게 가지면서 더불어

---

[168] 박흥순 et al.,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142.

[169] 박흥순 et al., 143.

[170] 이윤희, "폭력예방을 위한 평화인식 증진의 방향 연구: 기독교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vol. 53 (June 2017): 142.

[171] 이윤희, 14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에 주목하는데, 이 회복은 피조물 전체를 포괄하는 회복으로 확장되고 있다.[172] 종합해보자면 성서적 평화의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영역에서 온전함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의 기독교 평화교육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인 공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를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김도일은 진정한 기독교 평화교육은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73] 또한 기독교 평화교육은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 있는 신앙의식을 균형 있게 함의시켜주는 통전적인 평화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174] 그리고 기독교 평화교육은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사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평화 영성을 토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과제가 있다.[175] 통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은 총체적 관계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이다.[176] 기독교 평화교육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절된 모든 관계까지의 총체적 관계의 평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타자 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살림의 평화를 지향하는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B. 기독교 평화교육의 방향: ‘차별’에서 ‘상호의존’으로

질적 연구 결과에서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내면적 억압과 폭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였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해 교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목회와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군종목사들의 무관심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

172 이윤희, “폭력예방을 위한 평화인식 증진의 방향 연구: 기독교 평화교육을 중심으로,”144.

173 김도일, “평화를 위한 교회교육,” *교육교회* vol. 298 (June 2002): 23.

174 이윤희, “현대 기독교 평화교육의 동향과 미래적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vol. 48 (December 2016): 352.

175 이윤희, 352.

176 이윤희, 354.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차별, 즉 소극적인 차별 또는 방관적인 차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며,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닌 무관심이며, 생명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177] 무관심은 타자에 대하여 특별한 인지적인 집중을 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최성칠은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학술논문에서 다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관심은 모호한 심리적 상태, 즉 막연하거나 공허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타자, 자신과 상호관계를 가지기 원하신다. 그리고 다름을 주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 무관심은 관계하는 대상의 독특한 자기표현에 눈을 감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타자, 자아로부터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은 존재들의 가능성 혹은 초월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178]

이어서 그는 콜레트 기요맹(Colette Guillaumin)의 표현을 빌어 다름은 개체들 '사이의 다름(difference between)'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과 '비교한 다름(difference from)'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괴하는 죄라고 말한다.[179] 그리고 이 차별의 한 형태인 무관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0]

차별은 집단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두 개 이상의 권력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별이 가시화된다.[181] 그 차별이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차별에 대하여 성찰하지 않으면 인종 폭력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라고 알려진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집단 학살은 그 악랄함과 치밀함, 그리고 악착 같은 집요함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언급하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돌프

---

[177] Elie Wiesel, "The Need to Overcome Indifference," in *Overcoming Indifference*, ed. Klaus Schwab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39-40, quoted in 최성칠,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장신논단* vol. 24 (December 2005): 250.

[178] 최성칠,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장신논단* vol. 24 (December 2005): 264.

[179] 최성칠, 263-65.

[180] 최성칠, 267.

[181]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기독교다문화교육* (서울: 꿈꾸는 터, 2014), 151.

아이히만(Adolf Eichmann)'이라는 한 국민이 누가 들어도 경악할만한 악행에 앞장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묻는다.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악이란 특정한 악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82] 그 평범한 악이 자기도 모르게 전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었던 것은, 사유란 '하든 하지 않든'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183] 여기서 아이히만이 보여주는 말하기의 무능력함은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사유의 부재가 차별과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평화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은 이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성서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과 평화적 공존에 집중한다. 차이가 차별이나 격리가 되지 않도록 하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을 가두지 않고, 인류 공동체와 공동선을 향한 이타성, 개방성, 사회참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오현선은 첫째 차별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심적 내용은 평화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 둘째 기독교교육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역사적 선례들로부터 비판적 성찰을 가질 것, 셋째 기독교교육은 차이를 차별화하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육할 것, 넷째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인종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수 집단의 사람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것, 다섯째 기독교 평화교육은 교육방법과 과정이 주입식이나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존중의 원칙들을 중시하는 쌍방교육적, 변혁적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184] 다만 여기서의 상호의존은 자기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타인을 의지하는 역기능적 장애로서의 동반의존(codependency)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185] 따라서 다문화적 접근에서 기독교 평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차별을 넘어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평과 평등, 상생의 평화문화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평화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

[182] 조나영,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여성신학* no. 84 (December 2016): 191.

[183] 조나영, 191.

[184]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154–58.

[185] 주선영, 양성관, and 박희서, "동반의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 22, no. 11 (November 2017): 117.

C. 기독교 평화교육의 목표: '갈등 심화'에서 '갈등 회복'으로

군종목사들은 기독교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갈등 회복을 목표로 하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질적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억압과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타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적응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 정립되면 동화주의적 관점이 아닌 상호문화적 관점에 근거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군종목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종교 지형의 변화와 함께 종교로 인한 갈등도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병철은 본인의 학술논문인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과교육: 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 함의를 중심으로*에서 향후 국가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다문화사회와 종교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사회의 구성과 종교, 종교와 편견, 종교와 차별, 종교와 인권 문제, 다종교사회와 다문화사회의 함의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86] 다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그 공동체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종과 종교의 갈등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는 군부대 안에서 타종교 군종장교와 실질적인 교류를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고려한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문화'와 '상호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다문화라는 표현은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 또는 사회 변화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데, 상호문화는 교육이나 정치 및 사회적 목표 설정이나 구상과 연계할 때 사용된다.[187]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표출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서술적 차원에 중점을 둔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들 간의 상호적 개입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여 상호 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이자 동적인 차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186]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과교육: 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함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vol. 61 (December 2016): 122.

[187] 이연주,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상호문화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ThM dis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15.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 긴장을 수반하면서도 상호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차이보다는 공통된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 의미를 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종교교육의 목표는 기독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교리에 따른 신앙을 양육해 가는 교육과는 달리, 상호문화종교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신앙을 양육하고 선포하는 차원의 영역을 간과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다양한 층위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188]

전체적인 글의 논지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은 상호문화교육에 가깝다. 문화란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는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 문화 및 하위 문화에 대한 문화통합 보다는 관용 및 공존을 본질로 삼는다.[189] 이로 인해 생겨난 경계선은 상호 소통을 가로막고 소수 문화 및 하위 문화를 가진 개인 및 집단은 소외되고 게토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상호문화주의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및 집단에 대해 단순히 공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쌍방에서 이루어진다.[190]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모두가 주류가 됨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소통의 주체가 다양해진다. 그래서 점차 다자간 소통이 확산되면서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가 나타나고 새로운 문화 통합이 나타나게 된다. 상호문화교육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 및 집단이 가진 문화와 경험의 차이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학습을 강조한다.[191] 즉 개인 및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미들이 교환되고 연대함으로써 서로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188 박종수, “종교 교과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분석과 제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November 2017): 55.

189 이정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시대와 철학* vol. 28, no. 1 (March 2017): 204.

190 이정은, 205.

191 김한식, “노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콘텐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 22, no. 5 (October 2016): 343.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다르게 체험하는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공동협상 등을 통해서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지는 감수성을 '간문화성(intercultura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192] 보통은 문화들 사이에 놓인 제 3 의 공간에서 상황적 맥락을 통하여 문화적인 소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상이한 목소리들 사이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김은정은 지적하며 다문화성에서 간문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193] 이를 위해서 첫째 신앙과 문화 간의 창조적 대화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 둘째 이를 위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경험들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야 할 것, 셋째 신앙과 문화 간의 대화의 반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간문화적인 소통의 요인들을 숙지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194] 이를 통하여 상호변화와 상호치유를 도모하며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D.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실천되는 목회돌봄: '배제와 배타'에서 '환대'로

기독교에서의 환대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세상과 연대해야 하는지 보여주었고, 공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몸소 실천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 1:27). 그런 의미에서 배제와 배타로 내몰린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환대의 방법이 된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은 기독교적인 삶이란 타자들과 더불어 타자들을 위해 사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195] 환대는 타자를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여 자유롭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상호의존을 통해 공동체를 같이 형성하여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군종목사는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

192 김은정, "간문화적 기독교 종교교육방법론," *기독교교육정보* vol. 27 (December 2010): 160.

193 김은정, 161.

194 김은정, 162.

195 Eugene Peterson,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현실, 하나님의 세계,* trans. 이종태 and 양혜원 (서울: IVP, 2018), 31.

1. 예전적인 접근: 환대의 예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군부대에서 주일에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장병들은 통상적으로 주일은 종교활동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지 않고 멀리 떨어진 부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배차해서라도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부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예배 순서는 보통 가족이 많은 사단급 부대의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라 드리고 있지만, 연대급이나 대대급 부대들의 교회는 구도자 예배(The Seeker Service)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당분이 충분히 함유된 초코파이나 빵, 과자들을 제공받기 때문에 장병들에 예배의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눔과 풍성함이 있는 축제의 시간이다. 다만 언어나 문화의 낯설음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더불어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군인교회의 예배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레티 러셀은 우리의 예배가 공정한 환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 지향적인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196]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 언어, 직접적 행위로 표출함을 통해 타자를 공동체 안에 수용하고 직접 타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대를 제공하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197]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교육의 공간이자 배제와 배타를 벗어나 관심과 수용을 제공하는 안전한 피난처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예배의 자리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환대가 드러나는 예배 공간을 통해서 모든 장병들로 하여금 서로 가까이서 예배를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에 관한 '아남네시스(anamnesis)'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98] 예배를 통해 경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를 자신의 내면에 녹여냄으로써 병영생활 현장에서도 그 환대를 실천하는 동력을 다문화가정 장병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6]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69–71

[197]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no. 60 (December 2019): 424.

[198] Jane Rogers Vann, *Worship Matter 예배를 디자인하라,* trans. 신형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91.

신앙고백의 요소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소외되지 않는 관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파커 팔머(Parker J. Palmer)는 마음의 습관, 즉 총체적 앎의 경험을 총합하여 세계와 타자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관점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199] 마음의 습관은 타자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독교 평화교육에서 말하는 평화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신앙고백을 통해서도 평화감수성을 구현해낼 수 있다. 매주 어렵다면 매월마다 다문화가정 장병의 모국어를 포함하여 이중언어로 예배의 순서에 반영하거나 절기 예배 때 예배 강단 장식에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찬양이나 새신자 환영 시간에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모두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공동의 기도 시간에 이주노동자들이나 난민 등을 위한 기도제목 등을 포함시킨다면 모든 예배 참여자들에게 환대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며,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의례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함께 예배에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화해와 하나가 되는 사역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성만찬은 떡을 같이 떼고 잔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의 의미를 타자에게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탁지일은 그의 학술논문에서 지난 2 년동안 다문화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의 예전적인 요소가 환대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고백한다.[200]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들이 성만찬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28). 성만찬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주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타자가 없는 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만찬은 배제와 배타에서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화해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는 구정을 맞이해서 다문화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동영상 자료를 함께

---

[199] Parker J. Palmer,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trans. 김찬호 (서울: 글항아리, 2012), 38.

[200] 탁지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와 에큐메니즘,” *신학사상* no. 132 (March 2006): 261.

공유하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각 나라별 새해 인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한국어와 "사와디피마이"라는 다문화가정 장병 어머니의 나라인 태국어로 예배의 참여자들이 서로 인사하였다. 대표기도는 여 집사님이 맡았다.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거센 가사노동의 현장에 몰리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명절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이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평안함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평안함을 위한 내용도 있었다. 성경봉독은 이중언어로 진행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장병이 한국어를 먼저 읽고 후에 태국어로 읽었다. 설교는 창세기 1 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처음에 대하여 전하면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청지기적인 소명임을 주지시켰고, 동시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전하였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예배에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고 타자가 없는 하나가 되는 화해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군가족 및 기존의 장병들은 익숙하지 못했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환대의 기회를 열어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장병은 예배를 통해 군인교회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제 3 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군인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을 열려진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관계적인 접근: 환대의 밥상

예전에 한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구리 료헤이 (くりりょうへい)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연말이면 유명한 우동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는 듯한 말투로 우동 한 그릇을 시킨다. 하지만 마음이 푸근한 사장님은 사정을 아는지 항상 갈 때마다 1.5 인분을 챙겨준다. 몇 해를 그렇게 지냈는데 우연히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해서 빚을 남겼고, 아내와 자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은 세 손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오기를 계속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14 년이 지나 환대의 밥상을 기억하고 있었던 의대에 입학한 아들과 은행에 근무하게 된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환대의 밥상문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이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밥상문화는 곧장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문화이다. 심방을 갈 때에도

경험하고, 군부대 사무실을 내가 갑작스럽게 방문해도 시원한 냉수 한 잔이나 따뜻한 커피를 직접 원두에 갈아서 내어주는 환대를 경험한다. 조선시대에는 동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의 건강과 평화, 그리고 복을 비는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사상에 차려진 가장 좋은 음식을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낯선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마음으로 먼저 대접하였다고 한다.[201]

군인교회에서도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환대의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다. 환대의 밥상은 음식이 매개가 되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며, 소통과 관계가 형성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배제와 배타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기독교교육의 방법이다.[202]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환대의 밥상을 대접하였다. 특히 이방인들이나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공적 공간에서나 사적 공간 어디에서든지 차별 없이 환대의 밥상으로 환영하였다. 당시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조건의 경계들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서 구별되어진 음식이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로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되었다.[203] 또한 양자의 상호성을 전제로 식사 참가자들은 대접을 받은 만큼 보답해야만 했다.[204] 정결에 대한 관심, 부에 대한 편견, 하나님 백성의 정체에 관련된 배타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의 밥상에서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경계들을 다 허물고 환대의 밥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타자성을 회복시켰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예수의 식탁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라고 말한다.[205] 예수의 공생애 사역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모자라지 않게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로 초대하여 귀한

---

[201]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85-6.

[202] 김난예, "기독교교육 방법에서 밥상공동체의 교육적 가치," *기독교교육논총* no. 46 (June 2016): 73.

[203]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누가복음 14:12-24과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4, no. 3 (August 2017): 559-61.

[204] 반재광, 562.

[205]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trans.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18.

손님이나 가족으로 대접하였다.[206]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는 속칭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배제와 냉대를 경험한 이들을 초대하여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구체화시켰다. 군인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환대의 밥상은 이와 같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뉴먼(Elizabeth Newman)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비틀어진 환대를 감상적인 환대, 사유화된 환대, 시장식 환대, 포용적인 환대로 분류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환대, 즉 집을 잃어버린 자들을 맞이하는 환대 혹은 신적인 환대를 회복하라고 말한다.[207] 정경호는 이것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전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환대의 밥상이라고 말한다.[208] 이어서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아브라함의 환대의 첫째의 모습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seeing),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running to meet), 존경을 표하는 행동(honoring), 초대하는 행동(inviting),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에서 쉬게 하는 행동(refreshing),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preparing),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serving)으로 나타난다.[209]

갈대아 우르에서 낯설고 생소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이웃들의 수많은 환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아브라함을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였던 것이다.

나는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군인교회 환대의 밥상을 재구성하였다. 내가 사역하는 군인 교회에서도 조건의 경계들이 있었음을 경험하였다. 자리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조건의 경계들이 계급별로, 또는 성별로 식탁의 자리를 구분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

---

[206]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162.

[207]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MI; Brazos Press, 2007), 19-40, quoted in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September 2010): 182-83.

[208] 정경호, 183.

[209] 정경호, 194.

시간에 교회 환대의 밥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밥상의 자리로 공지하고 매주마다 다양한 계급과 성별을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원형 테이블을 마련하여 원형적 관계구조를 통해 빙 둘러앉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식탁문화를 만들었다. 후에는 차 마시는 시간을 공식화하여 얼른 한 끼를 해치우고 일어나는 밥상의 자리가 아니라, 한 주간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전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3. 대화적인 접근: 문화 간 성서 읽기(Reading the Bible through the Eyes of Another)

문화 간 성서 읽기(Reading the Bible through the Eyes of Another)는 같은 성서 본문을 읽고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유사하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서로의 눈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해보는 방법이다.[210] 문화 간 성서 읽기는 'EMS(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라고 불리는 독일의 복음선교연대에서 진행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로 한국을 포함해서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EMS 의 가브리엘리 메이어(Gabriele Mayer) 박사의 주도 하에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배경을 가진 그룹들이 같은 성서 본문을 공동으로 읽음으로써 서로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파트너 그룹의 견해들을 나눔을 통해 성서 텍스트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인교회에서의 성서 읽기는 주로 큐티와 같은 성경공부 교재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읽기는 성경공부를 위한 수단이 되어왔고, 이후 순서로는 성경내용 학습과 묵상 혹은 암송, 개인 삶의 적용 정도로 국한된 경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소수자나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문화 간 성서 읽기는 다문화가정 장병들과 더불어 접점을 찾고,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문화 간 성서 읽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성서는 환대를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성서를 이스라엘 역사로 한정하여 좁게 이해하게 되면, 다문화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

[210]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185.

가질 수 있다.[211] 그러나 성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배경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민이었던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마케도니아 지역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에 이르기까지 성별, 나이,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다. 다문화를 환대하는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주며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212] 또한 문화 간 성서 읽기에서는 소그룹의 형성이 중요한다. 소그룹이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모임이다. 소그룹 모임은 가깝게는 대면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수용과 배려를 통해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고, 넓게는 성서를 통해 창조세계의 고통받는 타자를 향한 보호와 돌봄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통전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213]

군종목사가 환대 신학에 기반한 기독교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환대와 존중,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수형 패러다임'을 지양해야 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관계를 왜곡시켜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독백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적인 것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의 생활방식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받게 될 경우에 문화 간의 성서 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 간의 성서 읽기를 통해 개인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중심성'을 인식하고 유의해야 한다.[214] 상호중심성이란 한 개개인 및 지역의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긍정적 요소로 여기고 창조적으로 유지한 채 반대편의 중심성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때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의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비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조하는 성향도 발생하기 때문이다.[215] 이런 면에서 동일하게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상호중심성이 필요하다. 허영식, 김진희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

[211]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대전: 대장간, 2013), 14.

[212] 신승범, "다문화사회와 기독교교육: 성서이야기를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vol. 43 (December 2014): 202.

[213]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427.

[214] 이향순, 186.

[215] 이향순, 186.

간문화교육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216] 이외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콜로니얼 성서 읽기'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포스트콜로니얼 성서 읽기는 서구 중심적 성서 읽기와 해석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목소리로 등장했는데, 무엇보다 해석자의 위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숨겨진 목소리를 찾아내고 주목할 수 있다.[217] 그리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해방적 읽기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218] 다시 말해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 읽기는 독자 자신이 속한 인종, 사회, 문화, 정치, 젠더의 위치를 통해 성서의 이야기들을 바라봄으로써 본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해석적 틀을 넘어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인도한다.

문화 간 성서 읽기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같은 성서 본문을 읽어도 그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둘째 타인의 눈을 통해 그려진 성서해석으로 자신에게 결핍된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상호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셋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성찰하도록 돕는다.[219]

나는 장병들과 문화 간 성서 읽기를 진행하였다. 본문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이나 지역, 또는 문화를 만난 본문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개인페이퍼를 나누어주었고, 가장 먼저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 가족사항, 군에 입대하기 전 학교나 직장 등을 적게 하였으며, 성경 본문이 개인의 현재 상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하여 개인페이퍼에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도록 권면하였다. 다만 모임 가운데 한글이 서툰 다문화가정 장병도 있었기 때문에 곁에서

---

216 허영식 and 김진희,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동향과 함의," *한국사회과학논총* vol. 23, no. 3 (September 2013): 51. 여섯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자민족 중심주의 태도를 가진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나 또는 우리를 다른 사회의 그것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둘째, 낯선 것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가진다. 타문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지하는 태도이다. 셋째, 타문화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다른 문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넷째, 다른 문화를 승인하고 존중한다. 자기가 속한 문화와 비교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가 타문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평가와 판단의 단계이다. 타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비추어 판단을 내리려고 시도한다. 여섯번째, 선택적 습득 단계이다. 타문화에서 나온 태도와 행동방식이 자기 자신의 문화적 사고와 행위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17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24–5.

218 박흥순, 25.

219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기독교다문화교육*, 201–03.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경을 읽을 때 따로 설명해주었다. 30 분 정도는 각자의 눈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여 개인 페이퍼에 적거나 그림을 그렸고, 10 분 정도 다과 시간을 보낼 때 각자의 개인페이퍼를 복사하여 나누어주었다. 다과 후에는 다른 장병들의 개인 페이퍼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이 그림이나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은 무엇을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인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었다.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에는 다시 한 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권면하였고, 다른 장병들의 개인페이퍼에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한 장의 페이퍼로 정리하고 나눔으로 문화 간 성서 읽기 모임을 종결하였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다문화는 21 세기 지구촌의 생활양식으로 인종 및 종교, 민족적 다양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군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명동에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명동은 외국인들도 많은 터라 도중에 어떤 흑인 남성분이 아들을 보고 귀엽다고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씩씩하며 잘 울지 않았던 아들이 낯섦에 겁이 났는지 그대로 몸이 굳어져버린 채로 시내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을 시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내 아들이 몸이 굳어버린 채로 대성통곡만 하고 말았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지도 모른다.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가 본 프로젝트의 문제 제기(research question)였고, 시작점이었다.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만나보았던 경험이 있는 10 년 이하의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공통적인 중심 현상으로 군종목사들은 다문화가정 장병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원인으로는 다문화 경험에 대한 참여 노력 부족, 돌봄에 취약한 군종목사, 판단을 유보시키는 복합적인 가치관 형성 배경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돌봄 준비가 부족하며, 다양성 배려를 불가능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있었다. 결국 그들의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돌봄의 모습을 살펴보니,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많았고, 다문화가정 장병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도 그저 통상적인 원론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업무관계로 만날 때에도 그들을 환대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목회돌봄의 형태로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이 결여되었으며, 돌봄의 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타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통해 군종목사들의 목회신학이 정립되어야 함을 보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으로 다문화 현상을 진단하였고 환대 신학을 통해 목회신학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평화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기초를 쌓은 위해서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그리고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타자화 현상을 이해하는 접점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향한 목회신학의 적용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레티 러셀(Letty M Russell), 그리고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등을 통해 환대의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기독교 평화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종목사들의 무관심이 다른 형태의 차별임을 인식하여 상호의존을 통해 차이를 존중하고 공평과 평등, 상생의 평화문화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평화의 능력을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성서적 관점에 기초해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실시하여 군종목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변화와 상호 치유를 도모하여 갈등의 회복을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나는 배제와 배타에서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신학 정립을 통한 실천적 전환을 위하여 기독교 평화교육에 기반한 목회돌봄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환대 지향적 사고와 기독교 평화교육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환대의 예배, 환대의 밥상, 그리고 문화 간 성서 읽기를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보완 사항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처한 군인교회에 당면한 과제들을 군종목사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종목사단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며 일관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군부대에서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은 모두 환대의 대상이다. 이를 위해 바쁜 업무와 소홀함으로 인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군종목사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건적인 환대를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향해 나아가는 실천적인 전환이 요청된다. 먼저 군종목사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의지를 가지고 환대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나아갈 때,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고통과 억압을 경험하고 차별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고 상호의존 가운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동화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 깊이 군종목사들 안에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동화주의적 사고는 다문화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군종목사들을 통해 대부분 나타났는데, 경험의 부족은 인식의 결핍으로 이어지며 결국 행동의 부재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간접 체험 등을 통한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그 내용들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면담하는 과정 가운데 군종목사들은 다문화 현상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을 통해 변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군대에 왔으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한 것이 아니겠느냐' 등의 고백 속에서 군종목사들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타자화 현상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군종목사들의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인식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의 군종목사들을 포함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타자화된 다문화 가정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외면하고 관심을 져버리는 태도에 비판적 저항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본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회고할 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목회자로서 평생 안고 가야할 질문 하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은 바로 '난 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들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라는 질문이다. 또한 나도 역시 그동안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며 안일한 모습을 보이던 나를 직면해야 했고, 끊임없이 안일하고 고착화된 나의 미숙한 태도들을 돌아보았다. 나도 동일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렇게 환대 지향의 목회신학의 입장을 가지기까지 많은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여전히 주위의_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낙인 찍힐까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무관심과 안일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적인 태도 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치유'라는 점과 그 치유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불어 이 모습을 예수가 실천하였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함을 알기에 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난 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들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라는 질문 앞에 마주서야 할 필요성을 또한 절감하게 되었다.

이 모든 깨달음은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나는 신학의 과정이란 내면의 자기를 성찰함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학기 기간 동안 지금까지의 내 목회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나 다움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특성을 감사하며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서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내 자신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에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며 성장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관계성은 다름을 이유로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는데, 한국 사회는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다름이 공존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의 수업이 제공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고민하게 하였고, 다문화 사회의 현장을 살펴봄으로 실제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넓혀갈 수 있었으며,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배우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독교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인적이며 또한 구조적일 수 있는데 이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 '나는 억압의 혜택자인가?', '억압을 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억압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포스트콜로니얼의 이상향은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존엄을 억압하지 않고 상호의존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목회신학의 지향점은 환대 신학임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가 제시하였고, 바울이 실천하였음을 신약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지금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내 목회신학에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하면서 인종과 언어의 편견에서 벗어나 환대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별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사람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남겼으며, '조커'라는

영화에서 열연하여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는 ‘영화라는 것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였다. 영화뿐만 아니라 차별의 장벽 앞에 놓인 모든 곳들이 개인적인 차이를 존중하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세상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부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목회자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감수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오늘도 찾아가는 환대적 목회돌봄을 수행하고, 더불어 찾아오는 그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변혁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Ⅰ: 연구참여 동의서
(Appendix I: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최태양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한 환대적 목회신학과 실천들 제시-근거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646-712-3278)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한 시간가량 참여하시게 될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최태양 목사의 전화번호 010-6293-7135 혹은 이메일 sendtolove@hanmail.net 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9-07 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010-2544-4206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부록 II: 다문화가정 장병을 고려한 환대 지향의 설교 예문
(Appendix II: A Hospitable Sermon Considering Multicultural Soldiers)

본 설교문은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해병대 백령교회에서 주일 오전예배 시 선포되었다. 설교자는 창세기 1 장을 통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함에 있다고 선포하며 상호의존을 지향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갈등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며 환대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샬롬을 추구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통전적인 회복을 제시하여 기독교 평화교육의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처음이 주는 의미

창세기 1:1-5

2020 년 1 월 25 일, 해병대 백령교회 주일예배

이번 주간 중에 우리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정은 음력으로 1 월 1 일인 첫날을 가리킵니다. 구정이 되면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비록 고향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도 반드시 고향을 찾아 모이는 일이 힘을 씁니다. 또한 방앗간에 들러서 흰 가래떡을 뽑아 떡국을 끓여먹고, 만두를 빚고, 윷놀이를 하는 등의 민속놀이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기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리고 설빔으로 새 단장을 하여 가족 어른들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첫 날을 가리키는 구정이 남다르게 여겨지는 것만큼, 세상의 처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창세기 1 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히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 장 말씀은 천지창조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빛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1-3, 개역개정)

'태초'라는 말씀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의 원어는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뜻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조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입니다. 또한 빛의 창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 3 절에서 말하는 빛이 창조된 이유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식물과 동물도, 그리고 모든 인간도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의도하심을 알아야만 비로소 피조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우리는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봅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그 제품의 기능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 명절에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 나 자신의 귀함을 깨닫고 더불어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창세기 1 장은 천지창조를 통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절에서 보면, 천하의 물과 뭍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1 절도 보면, 모든 씨 맺는 채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5 절에서도, 24 절에서도, 30 절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두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니, 이 모습들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9-10, 개역개정)

창세기 1 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무려 7 번이나 나옵니다. 그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지구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지구가 여러 행성들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구에게도 복이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신비스러울만큼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피조물 세계는 인간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피조물 세계를 보존하고 가꿀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 장에서는 사람의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7-8, 개역개정)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되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할 때 가장 사랑스러웠습니까?

부모를 닮을 때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잘 생긴 아기도 좋습니다. 건강한 아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닮은 아기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들은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기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에게는 부모 닮은 아기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7, 개역개정)

'생령'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네페쉬'입니다. 이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에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형상은 시공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의 형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26, 개역개정)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수적으로는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본체상으로는 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세 인격이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일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자연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작은 자라고 불리는 소외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감수성, 사회적인 감수성을 키워야 하겠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깊으셔서 아예 그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낯선 존재, 타인이 아닌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에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구정 명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과 형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록 Ⅲ: 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

(Appendix III: Feedback from Research Participnats on this Project)

주제	환대지향의 목회신학에 따른 기독교 평화교육 실천에 대한 반응 모음
시간	2020 년 3 월 10 일 – 3 월 17 일
진행	2020 년 3 월 10 일에 본 프로젝트의 2 차 드래프트 첨부파일을 SNS 로 전송하였고, 이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것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했으며, 원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녹음을 중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에 요약해서 실릴 것이며, 녹음 자료는 연구 기간 이후 모두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녹음파일명은 "통화녹음 000 목사"이며, 2020 년 3 월 18 일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A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목회신학이 부족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군대나 군인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장병을 위해 일방적인 동화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군종목사들에게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읽어보기 전에는 이러한 환대가 가능한지 생각하지 못했다. 읽어본 후에는 환대 지향의 실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장병이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에서 목회적 돌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성찬을 환대의 의미로 해석한 부분이 와닿았다. 다만 군인교회에서 성찬을 특별한 절기에 의례적으로만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성찬의 의미를 활성화시켜서 목회신학에 녹여낼 수 있으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환대의 식탁은 군인교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덧붙이자면 현지 음식에 대한 환대도 필요하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식탁에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 소속 부대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외모로 인하여서도 놀림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
B	군종목사들이 현안업무가 바쁘다 보니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한 목회신학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나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다문화 관련 교관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고, 다문화가정 장병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회신학이 형성되지 못했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환대의 예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기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교회 여건상 맞다고 생각한다. 환대의 식탁은 자기 부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환대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문화 간 성서 읽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병들이 성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며 참여도를 고민해볼 때 참여자의 범위를 간부들까지 확대시켜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C	군종목사들이 다문화가정 장병들에 대하여 목회신학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인 환대가 필요하다는 대에 통감한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환대의 예배에서 이중언어의 사용이 괜찮았다. 그런데 성만찬은 기존 성만찬과는 다른 다문화가정 장병들을 위한 예전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환대의 밥상은 다문화가정

	장병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으면 한다. 문화 간 성서 읽기는 앞으로 군종목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성향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장병들 스스로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는 인원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똑같이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D	목회신학에서 군종목사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를 읽어보면서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내 이 친구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지속할 수 있도록 군종목사의 역량을 만드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의 벽에서 닫혀져 버린 마음의 상처는 갑작스러운 따뜻함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충분히 지속할 수 있을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견뎌내고 품어내는 시간이 답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군대뿐만 아니라 전역해서도 단절과 배제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	현재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입대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에 대한 목회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장병들의 비율이 아직 높지 않기도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병들과는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환대의 예배는 필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언어나 문화권에 속한 다문화가정 장병들이 두루 있을 때에 그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환대의 밥상은 다문화가정 장병들만을 위한 특별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화 간 성서 읽기는 좋은 방안인 것 같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은, 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며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 같다. 다만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 시 성서에 열정이 많은 장병들로 인해 다문화가정 장병이 배려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구성원 간에 충분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웜업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되는 군인교회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요 예배 전후의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F	지난 번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장병들은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대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관심이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대답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읽어보면서 내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최근에 만난 다문화가정 장병이 언어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목회신학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환대 예배가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할 대상에 다문화가정 장병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매주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기에 한 번 정도 드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환대의 식탁에서 계급별로 암묵적인 경계의 선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에 동의한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착이 되고 자연스러워진다면 따뜻한 환대의 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 간 성서 읽기에서는 타문화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고 생각을 나누게 되면, 일단 재미가 있을 것 같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 (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고부응, 문상영, 박경화, 박상기, 박주식, 양석원, 이경덕, 이경원, 이석구, 이승렬, and 조규형.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이선.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9.

김재은. *기독교 성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서울: 포이에마, 2012.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대전: 대장간, 2013.

노영구, 김영수, and 최영진. *정신전력교육*.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9.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2006.

박흥순, 강성열, 권현희, 류성환, 오경석, 오현선, 유봉애, 최영일, and 한신애. *다문화사회 이야기마당: 다문화교육 매뉴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법무부.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서울: 법무부, 2018.

_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서울: 법무부, 2020.

서영석.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파주: 집문당, 2017.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기독교다문화교육*. 서울: 꿈꾸는 터, 201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nd*. 서울: 박영사, 2018.

채형욱. *100주년기념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2nd. 서울: 문학과학사, 2006.

[영서]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번역서]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lated by 나병철. 서울: 소명출판, 2012.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ė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Köstenberger, Andreas J., and David W. Jones. *God, Marriage, and Family 결혼과 가정*. Translated by 윤종석. 서울: 아바서원, 2016.

Levinas, Emmanuel. *Le Temps et L'autre 시간과 타자*. Translated by 강영안. 서울: 문예출판사, 1996.

Moore-Gilbert, Bart. *Postcolonial Theory: Context, Practices, Politicsus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Translated by 이경원. 서울: 한길사, 2001.

Palmer, Parker J.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Translated by 김찬호. 서울: 글항아리, 2012.

Peterson, Eugene.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현실, 하나님의 세계.* Translated by 이종태 and 양혜원. 서울: IVP, 2018.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Translated by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Vann, Jane Rogers. *Worship Matter 예배를 디자인하라.* Translated by 신형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저널]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no. 668 (August 2014): 234-50.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June 1995): 147-66.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과교육: 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함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vol. 61 (December 2016): 99-130.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젠더와 문화* vol. 4, no. 1 (June 2011): 167–203.

권향원 and 최도림.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vol. 45, no. 1 (March 2011): 275–302.

김경섭. “탈식민주의와 포스트탈식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현대사상* no. 2 (May 2008): 107–47.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4, no. 36 (December 2012): 133–60.

김기철. “다문화적 돌봄을 위한 목회신학적 성찰.” *신학과 세계* no. 86 (June 2016): 147–87.

김난예. “기독교교육 방법에서 밥상공동체의 교육적 가치.” *기독교교육논총* no. 46 (June 2016): 47–78.

김도일. “평화를 위한 교회교육.” *교육교회* vol. 298 (June 2002): 19–23.

김문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no. 47 (May 2015): 7–42.

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no. 57 (March 2014): 161–91.

김예란, 유단비, and 김지윤.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언론과 사회* vol. 17, no. 1 (February 2009): 2–41.

김은정. “간문화적 기독교 종교교육방법론.” *기독교교육정보* vol. 27 (December 2010): 153–70.

김종구. “평화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피아제를 읽다.” *중등우리교육* no. 184 (June 2005): 98–101.

김창근.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위한 다문화 공간론적 접근의 시사점.” *윤리연구* vol. 1, no. 118 (March 2018): 199–226.

김태원.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 공간과 정체성.”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April 2013): 27-43.

김한식. “노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콘텐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 22, no. 5 (October 2016): 335-53.

김헌기. “서발턴 연구와 역사의 한계.” *오늘의 문예비평* no. 112 (March 2019): 16-27.

김현수. “타자 대면의 방법들: 디트리히 본회퍼의 타자 윤리에 대한 한 해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5, no. 1 (October 2009): 275-303.

김혜령. “초대의 환대와 방문의 환대.” *제3시대* vol. 92 (September 2016): 6-10.

김호웅. “중국조선족, 그리고 제3의 영역과 이중문화신분.”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February 2010): 86-98.

김휘정.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vol. 31, no. 552 (November 2012): 1-4.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철학연구회* no. 21 (April 2011): 391-418.

문희경. “다문화 가족상담의 현황과 목회상담적 과제.” *신학지남* vol. 82, no. 2 (June 2015): 201-31.

민가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 *문화와 사회* vol. 9 (November 2010): 101-31.

박　단. “프랑스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 *이화사학연구* no. 35 (December 2007): 29-58.

박안서.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33-60.

______. “다문화장병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방안.” *국방정책연구* vol. 26, no. 4 (January 2011): 178–207.

박종수. “종교 교과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분석과 제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November 2017): 53–62.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누가복음 14:12–24과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4, no. 3 (August 2017): 553–85.

사경은, 기동환, and 이수기. “서울시 다문화 수용 인식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 분석.” *도시설계* vol. 20, no. 3 (June 2019): 95–114.

서운석. “한국사회의 국제개방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vol. 6, no. 3 (August 2016): 190–219.

설 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vol. 7, no. 1 (August 2014): 81–106.

송인재. “근현대 중국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 21* vol. 8, no. 6 (December 2017): 517–30.

신승범. “다문화사회와 기독교교육: 성서이야기를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vol. 43 (December 2014): 185–208.

양종근. “민족주의/탈식민주의, 보편성.” *인문연구* no. 67 (April 2013): 289–318.

윤선자. “한국 군종 활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기독교사상* vol. 654 (June 2013): 36–43.

윤인진. “한국인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인은 다문화와 이주민에게 냉담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December 2015): 109–10.

이광석. “해석현상학적분석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질적연구* vol. 14, no. 2 (November 2013): 132–44.

이광순.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을 위한 제안.” *장신논단* vol. 36 (December 2009): 236–61.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경제와 사회* no. 70 (June 2006): 63–88.

이윤희. “폭력예방을 위한 평화인식 증진의 방향 연구: 기독교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vol. 53 (June 2017): 133–63.

______. “현대 기독교 평화교육의 동향과 미래적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vol. 48 (December 2016): 349–82.

이정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시대와 철학* vol. 28, no. 1 (March 2017): 191–234.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no. 60 (December 2019): 405–35.

이효주. “목회신학이란 무엇인가: 실천신학과 공공신학과의 관계 안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no. 112 (April 2019): 221–50.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의 환대: 환대의 목회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 no. 1 (April 2013): 299–320.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0–91.

______.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September 2010): 177–209.

정애성. “공정한 환대: 환대에 대한 주변부의 상상력.” *기독교사상* (March 2013): 106–12.

정지언. “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 함양의 필요성과 군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국방정책연구* vol. 28, no. 4 (December 2012): 157–88.

조나영.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여성신학* no. 84 (December 2016): 189–96.

주선영, 양성관, and 박희서. “동반의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 22, no. 11 (November 2017): 177–24.

최성칠.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장신논단* vol. 24 (December 2005): 249–71.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 vol. 72 (June 2013): 229–62.

최유진. “레티 러셀의 교회론: 정의와 환대의 공동체.” *장신논단* vol. 1, no. 48 (March 2016): 225–52.

탁지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와 에큐메니즘.” *신학사상* no. 132 (March 2006): 259–79.

하상복. “황색 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no. 33 (June 2012): 525–56.

허영식 and 김진희.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동향과 함의.” *한국사회과학논총* vol. 23, no. 3 (September 2013): 31–60.

[학위논문]

고재천. “초급 군종목사의 군생활 갈등 경험 연구.” ThM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7.

김용일. “군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ThM diss.,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8.

김　천. “신세대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공군선교전략.” ThM dis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박봉섭. “타자의 윤리와 정의에 관한 연구.” ThM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8.

박성호.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PhD diss.,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이연주.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상호문화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ThM dis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임영섭. “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 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ThM diss.,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2015.

정명호. “다문화환경 대비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ThM diss.,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진병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PhD diss.,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8.

최정호.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Ph diss.,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웹사이트]

고범준. "20대 남 급감에 가시화하는 다민족, 다문화 군 전투력 영향은." *조세일보*. Accessed November 29, 20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6_0000821520&cID=10301&pID=10300.

김선영. "늘어나는 다문화 장병, 한국군 변화 시급하다." *세계일보*. Accessed November 29, 2019.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3878.

양정우. "이정옥 장관,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 *연합뉴스*. Accessed February 1, 2020. http://www.yna.co.kr/view/AKR20191114167800005?input=1195m.

염재중. "다문화 정책, 동화주의에서 문화다원주의로 전환해야." *조세일보*. Accessed May 14, 201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11/20121106159672.html.

오수진. "문 대통령 의지와 다문화 현실간 괴리, 지원책도 미비." *연합뉴스*. Accessed February 1, 2020, http://www.yna.co.kr/view/AKR20191120071000371?input=1195m.

이 민.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1일." *아멘넷 뉴스*. Accessed August 15, 2018. http://www.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6448.

2 차 자료 (Second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동녘, 2018.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B&P, 2006.

장신근.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반부, 2011.

[번역서]

Bonhoeffer, Dietrich. *Gemeinsames Leben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Translated by 정지련 and 손규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Bonhoeffer, Dietrich.*Widerstand und Ergebung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Translated by 김순현.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Keller, Timothy.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팀 켈러의 센터처치.* Translated by 오종향. 서울: 두란노, 2016.

[저널]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신학연구* vol. 65 (December, 2014): 95-122.

곽정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저항: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vol. 65 (June, 2012): 1-24.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다문화사회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vol. 6, no. 4 (August, 2017): 115-31.

오현선. "다문화사회와 개신교의 기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vol. 36 (July, 2011): 21-38.

______.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차별화하는 폭력성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 평화교육의 한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vol. 20 (January, 2009): 301-28.

옥장흠.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신학사상* no. 185 (June, 2019): 279-313.

유은주.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no. 44 (December, 2015): 339-64.

윤은주. "정치적 행위와 서발턴의 유목적 정체성." *사회와 철학* no. 33 (April, 2017): 82-104.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마당으로서의 교회." *신학연구* vol. 73 (December, 2018): 137-61.

황재동.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신학과 사회* vol. 32, no. 3 (August, 2018): 97-140.

[학위논문]

김중배.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경험.” PhD diss.,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윤성필. “다문화 목회와 선교적 리더십 개발 연구.” PhD dis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8.

이동구. “다문화사회의 군 리더십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PhD diss.,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정현석. “군 장병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분석에 따른 전력향상방안 연구.” PhD diss.,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9.